

## 【4】 값지고 화려한 문화 텃밭의 모든 것들

### 1. 종교

#### (1) 불교

옛날의 온양군에는 과안사, 기린사, 남산사가 모두 서달산에 있었고, 목사는 배방산에 있었으며, 외암, 현우사, 중암은 모두 화산에 있었고, 석암사는 송악산에 있었다. 그리고 상암은 광덕산 북쪽 기슭에 있었으니, 온양군 관내에는 모두 9개의 사찰이 있었던 것이다.

온양 지방의 불교는 고려 말 조선 초까지 대단히 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온양군은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에 근접하여 있고, 공주에는 거찰로 손꼽히는 감사, 마곡사 등이 있는 등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에도 상당히 성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현재 온양읍에 있는 사찰들을 종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조계종 사찰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사찰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승려		대표자		신도수			건물	
			남	녀	성명	성별	계	남	녀	건평	대지
백련암	방축리 32-2	1950.6		1	양연옥	여	50		50	130	178
보광암	용화리 산66	1943		1	이지행	여	100		100	25	700
보광사	방축리 산25	1943		1	서성운	여	80		80	43	250
영천암	풍기리 산16	1942.4		1	이길영	여	40		40	21	200
옥천담	신인리 산55-2	1927.4		1	김주애	여	40	8	32	19	100
포교당	온천리 107-177	1973.8		3	임순희	여	400	20	380	110	200
흥륜사	용화리 50	1944.4	1	2	정대기	남	100		100	21	100

※자료 : 아산군 문화공보실

#### ② 태고종 사찰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사찰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승려		대표자		신도수			건물	
			남	녀	성명	성별	계	남	녀	건평	대지
수도암	용화리 산 57	1930.4		1	오상인	여	70		60	30	300
오봉암	장준리 50	1946.4		1	방선길	여	50	10	50	38	200

※자료 : 아산군 문화공보실

③ 화엄종 사찰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사찰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승려		대표자		신도수			건물	
			남	녀	성명	성별	계	남	녀	건평	대지
자정사 ( 반야 사) 정업원	실옥리 23	1947.4	1		유운장	남	40		40	23	100
	용화리 253	1957.4	1	1	전용진	남	150	40	110	18	864

※자료 : 아산군 문화공보실

(2) 천주교회

① 연혁

- 1948 : 공세리 본당 방축리 공소 설립
- 1948 : 온양교회 분리 독립
- 1057 : 온양교회 설당 낙성
- 1959 : 수녀원 설치
- 1967 : 선화유아원 설치
- 1976 : 사제관 및 상가 낙성

② 교세 (1980년 6월 30일 현재)

- 신도수 : 약 2,500명
- 건물 : 대지 약 1,268평, 건평 약 400평

③ 역대 대표자(신부)

대수	임기년도	성명	대수	임기년도	성명
초대	1948	매베드로	5	1966	김영환
2	1950	노베드로	6	1971	김순호
3	1951	신정호	7	1972	유재식
4	1954	한도준	8	1977	유인성

※자료 : 온양천주교회

(3) 온양 성공회

아산 지방에 성공회가 들어온 것은 둔포면 둔포리 303번지와 영인면 백석포리 468번지에 성공회가 1906년에 각각 설립된 것이 그 최초이며, 1932년에 온양성공회가 설립되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인 성직자에 의하여 성당이 매각되어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1969년 영국인 노대영(Richard Rutt) 주교에 의하여 파견된 김사풍 신부의 노력으로 재건되었다.

- ① 대표자 : 김안기
- ② 교세 (1980년 6월 30일 현재)
  - 신도수 : 총 141명 (남 56명, 여 85명)
  - 건물 : 대지 242평, 건평 50평

※자료 : 온양 성공회

(4) 기독교

온양 지방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는 1901년 5월 24일에 최재유의 아버지 최봉현이 염치면 백암교회(구미골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이 아닌가 추측되며, 본격적인 전교활동은 1904년 3월 20일 당시 조선기독교 감리회 온양교회라는 명칭으로 온양읍 읍내리 2구에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의 수난을 겪고 또 한국 전쟁으로 한 때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교회 재건과 신앙부흥을 꾀하여 날로 교세가 확장되어 왔다.

① 감리교회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교회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역대 대표자 (목사, 전도사)	신도수			건물	
				계	남	녀	건평	대지
시온교회	권곡리 438-2	1974.10.4	초대: 이규동, 2대: 강상철	221	78	143	178	340
온양교회	읍내리 156	1904.3.20	(일제시대 미상) ① 조동석    ② 이영중 ③ 노철원    ④ 조주호 ⑤ 김원용    ⑥ 신길봉 ⑦ 강태수    ⑧ 박상수	129	51	78	52	215
온양온천 제일교회	온천 8리	1980.1.6	(現) 정진삼	120	70	50	34	210
온천 중앙교회	온천리 61	?1933-예배 당 신축 ?1945.8.15- 현 위치로 이전 ?1950.6.25-	초대: 신명섭, 2대: 홍○○ 3대: 이봉주, 4대: 강지향 5대: 김기동, 6대: 고영목 7대: 이병주, 8대: 신광현 9대: 이현선, 10대: 채태권	874	374	500	170	295

		전쟁으로 전소 ? 1955- 현 건물 신축	11대:이기연, 12대: 이재호 13대:이병재, 14대: 이시준 15대:오승주, 16대: 유중경 17대: 윤덕영					
--	--	----------------------------------	---	--	--	--	--	--

② 장로교회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교회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역대 대표자 (목사, 전도사)	신도수			건물	
				계	남	녀	건평	대지
동천교회	모종리 379	1961.11.3	초대: 장명윤, 2대: 김춘향 3대: 김권남, 4대: 최중권 5대: 장명윤	300	120	180	150	280
영광교회	권곡리 263	1970.4.5	(미상) (現) 김홍식	350	100	250	50	249
온양 삼일교회	온천리 104-4	미상	(미상) (現) 정중교	580	180	400	147	350
온양교회	온천리 107-57	?1969.9.5. ?1980.6.15- 건물신축	초대: 안기중, 2대: 윤영노 3대: 윤수영, 4대: 서정덕 5대: 이선주	526	195	331	240	246
온양 제일교회	온천리 36-28	1946.4.15	(미상) (現) 김충효	450	60	390	250	800
서광교회	실옥리 17	미상	(미상) (現) 김영옥	80	32	48	20	100
신인교회	신인리 17-2	미상	(미상) (現) 정득운	100	20	80	18	130
신촌교회	실옥리 17-32	미상	(미상) (現) 김수옥	80	30	50	20	200
풍기교회	풍기리 229-32	1950.3.5 (이혜성)	(미상) (現) 이근영	185	85	100	76	684

③ 침례교회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교회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역대 대표자 (목사, 전도사)	신도수			건물	
				계	남	녀	건평	대지
기산교회	기산리 142-3	미상	(미상) (現) 도월태	122	48	74	35	100
온천교회	온천리 98	미상	(미상) (現) 이진호	460	162	298	120	164

④ 성결교회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교회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역대 대표자 (목사, 전도사)	신도수			건물	
				계	남	녀	건평	대지
온양교회	온천리 204	미상	(미상) (現) 정연창	257	90	167	80	330

⑤ 나사렛교회 현황

(1980년 6월 30일 현재)

교회명	소재지	설립 년월일	역대 대표자 (목사, 전도사)	신도수			건물	
				계	남	녀	건평	대지
온양제일 성결교회	용화리 16-145	1974.4.15	(미상) (現) 오세화	100	20	80	85	109

(5) 기타 종교

① 온양 신사

일제 때 일본인들이 우리의 민족혼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국교인 신사를 한반도 전국 각지에 세우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이러한 목적 하에서 한민족의 다른 종교들 탄압하는 한편, 강제로 일본 국교에 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온양 지방 중심부인 지금의 경로당 위치에 사전을 세운 것이 온양신사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경일과 그들이 저지른 제2차 세계대전의 선전포고일, 그리고 매월 8일에는 각 관공서의 관리들과 학생들을 총동원하여 수 백 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식으로 의식을 거행하며 조선 사람들의 일본 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광복과 동시에 온양신사는 뜻 있는 애국시민들에 의해 모두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제일장로교회와 주택과 경로당이 들어 서있다.

② 민간신앙

가. 초사리 노신제

매년 음력 1월 14일에 부락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100여 년 전부터 행하여지고 있다.

나. 방축2리 산신제

온양 사슴목장 뒤의 암벽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산신제는 온 동네가 무병하고 재수가 좋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에 길일을 택하여 동민 전원이 참석하여 제를 올리는 데, 제주는 생기복덕이 닳아 부정이 없고 일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5명의 소임을 뽑아 당일의 음식준비 등 행사를 맡아서 행한다.

여기서 부정이라 함은, 출산, 상고, 기타까지도 금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날의 제물로는, 옛날에는 소나 돼지를 현지에서 도살하여 통째로 썼으나, 근래 와서는 돼지머리를 쓰는데 돼지머리를 살 때에는 값을 깎지 않는다고 하며, 부정한 집의 돈으로는 제물도 사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는 3일 전부터 출타를 금하고 제례행사에만 힘쓴다.

다. 실옥2리 산신제

유래 및 행사내용을 알 수 없으나 1975년부터 중단되었고, 공월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라. 용화리 성황제

매년 음역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동민 합동으로 생기복덕이 좋은 제주를 선정하여 마을 앞 느티나무 고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날의 경비는 동민들의 성금이나 성미로 준비한다.

마. 용화2리 산신제

유래는 알 수가 없으나 마을 뒷산 중턱(정업원 대웅전 뒤)에 큰 암벽이 있는데, 옛 날에는 매년 음역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이 바위를 위해 왔으나, 1950년대에 정업원이 창건되면서부터 이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교육

(1) 개요

① 설립 학교수

(1980년 12월 31일 현재)

총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13	9	4	5	5		4	2	2	4	2	2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② 학교별 내역

가. 중고등학교

- 온양고등학교(도립, 충청남도)
- 아산고등학교(사립, 학교법인 아산학원)
- 온양여자고등학교(공립, 충청남도)
- 온양여자상업고등학교(사립, 학교법인 삼화학원)
- 온양중학교(공립, 충청남도)
- 아산중학교(사립, 학교법인 아산학원)
- 온양여자중학교(공립, 충청남도)

나. 국민학교

- 온양국민학교
- 온양온천국민학교
- 온양초사국민학교
- 온양천도국민학교
- 온양동신국민학교

③ 학교별 교직원 현황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합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	326	438	303	35	5	143	153	94	59	4	82	108	75	33	4	101	177	134	43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④ 학교별 재학생 현황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합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8,277	9,033	9,244	7,250	3,741	3,509	5,143	2,619	2,524	5,884	2,673	3,211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2) 학교별 현황

① 온양고등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261-6

나. 연 혁 : 1927. 4. 5 신창공립농업보통학교 설립

1947. 5. 26 온양초급중학교로 개편

1948. 8. 7 온양고급중학교로 개편

1951. 8. 31 온양고등학교 설립 인가

1951. 9. 28 개교 및 입학식 거행

1954. 7. 6 10학급 인가

1954. 12. 12 현 교사로 이전

1955. 4. 1 15학급 인가

1973. 11. 28 24학급 인가

1976. 11. 30 신축 3층 교실 준공

1979. 10. 25 27학급 편성 인가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배 준	1951. 11. 30 ~ 1954. 11. 20	6	민영찬	1970. 3. 6 ~ 1973. 8. 31

2	이종호	1954. 11. 29 ~ 1960. 7. 4	7	권혁조	1973. 9. 1 ~ 1975. 11. 30
3	김창환	1960. 7. 5 ~ 1962. 9. 9	8	한병목	1975. 12. 1 ~ 1978. 2. 28
4	한철우	1962. 9. 10 ~ 1963. 3. 27	9	김동근	1978. 3. 1 ~ 1980. 2. 28
5	이성규	1963. 3. 28 ~ 1970. 3. 5	10	장일환	1980. 3. 1 ~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강사	소계	서무	고용원	잡급
인원	48	40	1	1	10	28		8	2	2	4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	계	1	2	3
인가학급	25	9	8	8
편성 학급	공통	9 (543)	9 (543)	
	인문	8 (463)		4 (236)
	자연	6 (344)		3 (182)
	직업	2 (100)		1 (49)
	계	25 (1,450)	9 (543)	8 (467)
정원	1,500	540	480	480
현원	1,450	543	467	440

바. 졸업생 현황

연도	계	'69年 이전	'70	'71	'72	'73	'74	'75	'76	'77	'77	'78	'79	'80
회수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인원	6,509	3,039	183	186	221	218	207	223	231	341	421	427	395	417

사. 학교 재산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교지	운동장	교사?건물		
			신관	구관	기타
면적(평)	12,831.9	5,000	826.3	221.66	368.6

아. 특별활동 현황

·밴드부(47년 창설)

- 1956년 : 제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전국 남녀 음악경연대회 출전(준우승)
- 1957년 : 제10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전국 남녀음악 경연대회 출전(우승)
- 1977년 : 충남도 교육위원회 주최 음악 콩쿨 출전(3등입상)

※ 군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그 외 역도부, 유도부, 태권도부 등을 두고 선수를 배출하고 있음

② 아산고등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30-3

나. 연 혁 : 1946. 5. 22 온양농예중학교 설립 인가

1946. 9. 7 온양농예학교 개교

1947. 6. 5 온양농예중학교로 개칭

1951. 8. 31 아산중학교 개칭 인가

1952. 10. 18 학교법인 아산학원 설립 인가

1969. 12. 15 21학급 인가

1972. 12. 26 아산종합고등학교 설립 인가

1973. 9. 5 아산고등학교로 개칭 인가

1979. 10. 15 27학급 인가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박복록	1970. 11. 17 ~ 1978. 5. 18
2	임광수	1978. 5. 19 ~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소계	서무	고용원
인원	34	29	1	1	5	22	5	2	3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구분	합계	1										2					3						
		소계	1	2	3	4	5	6	7	8	9	소계	직업			자연		소계	직업			자연	
													1	2	3	4	5		1	2	3	4	5
인원	1,119	540	60	60	60	60	60	60	60	60	60	300	59	59	59	62	61	279	60	53	53	52	61

바. 졸업생 현황

회수	計	1	2	3	4	5
인원	1,125	147	243	216	252	267

사. 학교 재산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교지	운동장	교사
면적(평)	15,631	7,400	1,390

아. 특별활동 현황

·하키팀(75년 창단)

- 총 25명(정선수 11명, 후보 14명)

- 창단 이래 전적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3위

·대구 MBC배 쟁탈 전국대회 2위

·80년도 전국 체육대회 우승

·악대(78년 창단)

- 총 31인조

- 창단이래 활동

·군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교내 교외 연주회 2회

③ 온양여자고등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풍기리 214-18

나. 연 혁 : 1955. 4. 27 온양여자고등학교 설립 인가

1955. 6. 1 온양여자고등학교 개교

1970. 12. 22 각 학년 3학급씩 9학급 인가

1977. 11. 1 각 학년 보통과 9학급씩 27학급 인가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김석두	1955. 5. 24 ~ 1956. 4. 4	7	강태형	1972. 9. 12 ~ 1974. 2. 28
2	이의필	1956. 4. 5 ~ 1961. 9. 3	8	김 선	1974. 3. 1 ~ 1976. 2. 2
3	진성섭	1961. 9. 4 ~ 1966. 6. 25	9	이춘제	1976. 2. 3 ~ 1978. 9. 13
4	김덕균	1966. 6. 26 ~ 1969. 6. 14	10	장성진	1978. 9. 14 ~ 1980. 9. 1
5	박창서	1969. 6. 15 ~ 1972. 3. 17	11	손락철	1980. 9. 2 ~
6	김용인	1972. 3. 18 ~ 1972. 9. 12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서무	잡급
인원	52	43	1	1	41	9	2	7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학급별	계	1	2	3	4	5	6	7	8	9
계		1,575	173	172	173	172	176	180	180	174	175
1		536	60	60	61	60	61	59	57	59	59
2		519	57	56	56	56	60	58	60	57	59
3		520	56	56	56	56	55	63	63	58	57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1年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3,170	이전	132	59	55	76	79	92	124	122	116	126	118	120	127	117	119	183	186	228	234	300	397

사. 학교 재산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교지	운동장	교사
면적(평)	10,526	1,247	60

아. 특별활동 현황

- 무용부, 배드민턴부, 농구부를 두고 육성중임.

④ 온양중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용화리 273 (구교지 : 온양읍 온천1리)

- 나. 연 혁 : 1946. 2. 10 본교 전신 온양중학원 개교  
 1947. 5. 20 온양중학교 설립 인가 (남여 공학 6학급)  
 1950. 10. 15 장충단 설립  
 1951. 8. 31 온양고등학교 분리  
 1956. 4. 1 온양여자중학교 분리

- 1961. 5. 9 장충단 석비 건립
- 1969. 1. 3 21학급 허가
- 1979. 7. 31 장충단 이장 (현 교지)
- 1979. 12. 28 학교 이전 (현 교지)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구연홍	1947. 5. 20 ~ 1947. 12. 15	7	성완용	1963. 3. 25 ~ 1968. 3. 4
2	이성기	1947. 12. 16 ~ 1951. 3. 20	8	이의필	1968. 3. 5 ~ 1969. 9. 5
3	유기면	1951. 3. 21 ~ 1951. 11. 29	9	장일환	1969. 9. 6 ~ 1974. 9. 4
4	이민공	1951. 11. 30 ~ 1955. 5. 15	10	송성영	1974. 9. 5 ~ 1977. 2. 28
5	김석두	1955. 5. 16 ~ 1960. 7. 4	11	이용주	1977. 3. 1 ~ 1981. 2. 28
6	황제주	1960. 7. 5 ~ 1963. 3. 24	12	윤명재	1977. 3. 1 ~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5월30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주임 교사	교사	소계	서무	고용원
인원	35	28	1	1	10	16	7	2	5

마. 학생 현황

(1980년 5월30일 현재)

학급별 학년별	계	1	2	3	4	5	6	9
		計	1,307	187	188	184	187	186
1	427	61	61	61	61	61	61	61
2	453	65	65	64	65	65	64	65
3	427	61	62	59	61	60	63	61

바. 특별활동 현황

·풍악대 - 1973. 9. 15 : 전국경연대회 우승 (경북지사 구자춘)

1973. 10. 14 : 국제민속 무용경연대회 중등부 특상 (동국대 총장 서돈각)

1977. 4. 28 : 충무공 탄신기념일 KBS-TV 녹화방송 출연

·농 구 - 1977 : 도 평가전 1 위

1978 : 교육감기 쟁탈 1 위

1979 : 충남대표팀 소년체전 출전 2 위

1980 : 전국소년체전 2 위

사. 특 색

·장충단 - 6.25 사변 당시 남하하지 못한 온양중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교사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반공비밀 결지인 태극동맹을 결성하여 활동하다 교살된 유해를 모시고 반공교육에 힘쓰고 있음

·무료이발 一年 210 만원 절약 예정

아. 교육 소신 (경영의지)

·신뢰받는 스승상 정립

·자주학습 능력 배양 (예습, 복습)

·기본학력 미달자 일소 보충 학습 지도

·학교 건설 (신설 교정 환경 조성)

·가정방문 생활지도 주력

자. 졸업생 현황

연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인원	8,685	2,261	298	922	938	038	133	333	134	430	533	331	938	840	039	937	540	348	844	045	643

차. 시설연구학교 지정

(1980년 3월 1일 현재)

지정년도	'78	'79
지정구분	군지정 연구 시범학교	군지정 연구학교
영역	국민정신교육	학습지도 개선 시범학교 연구
주제	국민정신교육 실천 보고	새 수업체제를 통한 수학과 학습지도 개선 방안

⑤ 아산중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30-3

- 나. 연 혁 : 1946. 5. 22 온양농예중학교 설립 인가  
 1946. 9. 7 온양농예학교 개교  
 1947. 6. 5 온양농예중학교로 개칭 인가  
 1951. 8. 31 학제 개편에 의하여 아산중학교로 개칭  
 1952. 10. 18 학교법인 아산학원 설립 인가  
 1955. 12. 29 12학급 편성 인가  
 1964. 1. 9 15학급 편성 인가  
 1969. 12. 15 21학급 편성 인가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윤성순	1946. 5. 22 ~ 1946. 10. 1	5	박복록	1961. 10. 27 ~ 1978. 5. 18
2	성락창	1946. 10. 1 ~ 1949. 3. 30	6	임광수	1978. 5. 19 ~ 1981. 5. 18
3	윤태호	1949. 4. 25 ~ 1950. 10. 1	7	박정화	1981. 5. 19 ~
4	이원모	1951. 9. 17 ~ 1961. 9. 30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서무	잡급
인원	32	28	1	1	26	4	2	2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구분	계	1	2	3
인원	1,308	422	461	425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인원	8,141	1,799	211	829	628	720	027	521	924	828	529	725	820	831	846	139	542	343	446	149	547

사. 시범연구학교 지정

연도	'79	'80
지정구분	군 지정 기술과 연구학교	군 지정 과학과 연구학교
영역	시설	시설
주제	기술과 시설 시범학교	과학과 시설 환경

아. 특별활동 현황

·하키부 : 1975년 창단

1978년도 도평가전 3위

1979년도 도평가전 2위

자. 특색

·야간 학습반 설치 운영으로 실력 향상

차. 교육소신(경영 의지)

·자아 실현이 교육의 지표 - 창의성 발휘

·명령보다는 조언, 지시보다는 협의, 감독보다는 협동체제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⑥ 삼화여자중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권곡리 409

- 나. 연 혁 : 1952. 5. 1 성광중학원 설립 인가  
 1955. 12. 31 학교법인 삼화학원 설립 인가  
 1956. 2. 28 6학급 인가  
 1970. 12. 26 박우승 이사장 취임  
 1973. 1. 13 12학급 증설 인가  
 1975. 11. 6 이은숙 이사장 취임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대수	姓名
초대	박원동	5	이길화
2	이상주	6	윤복현
3	최종옥	7	이성규
4	남두희	8	박우승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원				일반직원		
		소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서무	잡급
인원	22	18	1	1	16	4	3	1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구분	학년별 구분		
	1	2	3
학급수	12	4	4
인원	775	247	262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2,781	59	16	63	76	51	104	88	96	124	92	108	105	123	136	109	182	236	251	239	261	262

사. 시범연구학교 지정

연도	'79
지정구분	군 지정 연구학교
영역	새마을 운동
주제	새마을 갖기,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새마을 정신의 함양

아. 특색

- 명상시간을 통한 정서 교육
- 효행 및 선행표창을 통한 밝은 마음 바른 행동 지도

자. 교육소신(경영 의지)

- 하느님 사랑하여 참되고 멋있는 여성
- 이웃을 사랑하여 쓸모있는 여성
- 자기를 사랑하여 교양있고 아름다운 여성

⑦ 온양국민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읍내리 150

- 나. 연혁 : 1904. 4. 22 온양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08. 6. 17 온양공립보통학교 개교(4년제)  
 1920. 4. 1 졸업 년한 6개년으로 개정  
 1930. 8. 22 온양온천국민학교 분리  
 1938. 4. 1 온양명륜공립심상소학교로 교명 개칭  
 1941. 4. 1 온양명륜공립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49. 12. 1 온양초사국민학교 분리  
 1950. 6. 1 온양국민학교로 교명 개칭

1976. 3. 1 교육개발원 새 교육체제 종합시범 협력학교 운영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대수	성명
초대	김경배	8	김희성
2	전영수	9	송서영
3	정인용	10	이종구
4	맹하영	11	송병목
5	신응교	12	성원경
6	이응렬	13	송종우
7	조원행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계	13	1	1	11
남	8	1	1	6
여	5			5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계	1	2	3	4	5	6
구분								
학급수		12	2	2	2	2	2	2
인원	계	526	98	79	83	89	80	97
	남	285	50	35	56	47	45	52
	여	241	48	44	27	42	35	45

바. 졸업생 현황

연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5,700	1,113	94	99	104	94	107	125	100	146	131	156	128	106	184	121	131	119	103	112	110	83

사. 시범연구학교 지정

연도	'72	'77	'78	'80
지정구분	도 지정 연구학교	군 지정 연구학교	군 지정 연구학교	군 지정 연구학교

영역	반공도덕	사회	음악	음악
주제	자율적인 실천력을 통한 반공도덕 생활의 내면화에 대한 실천연구	사회과 수업개선을 위한 체제적 접근방법의 연구	기초적인 올겐 연주 기능 신장	기초적인 올겐 연주 기능 신장

아. 특색

- 새 수업체제 적용 심화
- 기초적인 올겐 연주 기능 신장

자. 교육소신(경영 의지)

- 인화위주로 너와 나를 위하여 자율정신(교직원)
- 아름다운 환경 조성(공원화)으로 정서도야와 면학기풍(분위기) 조성(학생)

차. 특별활동 현황

- 1978년 수영(배영 200m) 도평가전 3위
- 1978년 수영(배영 100m, 200m) 도평가전 3위
- 1980년 교기로 탁구 지정

⑧ 온양온천국민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107

나. 연혁 : 1930. 3. 18 온양신정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30. 8. 22 온양신정공립보통학교 개교(온양국민학교에서 분리)

1950. 6. 1 온양온천국민학교로 개칭

1955. 4. 1 온양천도국민학교 분리

1972. 11. 20 온양동신국민학교 분리

1975. 11. 11 교실 개축 이전(23개 교실)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대수	성명
초대	민계동	8	이대성
2	맹하영	9	박찬범

3	임용빈	10	김규식
4	심한섭	11	최상춘
5	정일희	12	승병목
6	김대성	13	채승선
7	김규식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서무
계	60	1	1	57	1
남	33	1	1	30	1
여	27			27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구분		계	1	2	3	4	5	6
		학급수	56	9	10	10	9	9
인원	계	2,970	506	541	527	471	477	448
	남	1,526	284	285	281	221	234	221
	여	1,444	222	256	246	250	243	227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2년 이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20,018	4,360	408	407	414	557	626	513	585	585	599	578	688	649	504	485	413	395	384	385	436

사. 시범연구학교 지정

연도	'70	'73	'77	'79
지정구분	도지정 연구학교	도지정 연구학교	군지정 연구학교	문교부지정 연구학교
영역	시청각	육상, 체조	독해학습	새마음갓기
주제			教材 유형에 따른 독해학습 방법 적용 연구	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새마음 정신의 함양

아. 특색

- 안전 질서 확립
- 연구하는 교사상 확립
- 학교 환경의 도장화

자. 교육소신(경영 의지)

- 금지 높은 한국인 육성
- 깨끗하고 잘 배우며 서로 돕는다.

차. 특별활동 현황

- 1978년 : 축구 도평가전 2위  
          : 탁구 도평가전 3위  
          : 테니스 도평가전 3위
- 1979년 : 배구 도평가전 1위
- 1980년 : 배구 도평가전 2위  
          : 교기로 축구 지정

⑨ 온양동신국민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모종리 439

- 나. 연혁 : 1971. 12. 16 10개 학급, 변소 1동 신축  
          1972. 4. 27 교지 정리, 담장 340m 축조  
          1972. 5. 1 온양 온천 국민학교 분교실 설치

1972. 11. 20 온양 동신 국민학교 개교

1973. 10. 26 4개 교실 증축

1974. 9. 17 2개 교실 증축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대수	성명
초대	성승경	3	한재석
2	권오석	4	박연창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계	21	1	1	19
남	17	1	1	15
여	4			4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학년별						
		계	1	2	3	4	5	6
학급수		19	4	3	3	3	3	3
인원	계	1,061	178	185	184	174	170	170
	남	568	89	98	102	98	94	87
	여	483	89	87	82	76	76	83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합계			'75			'76			'77			'78			'79			'8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원	1,002	516	486	1,622	76	86	1,544	51	73	1,918	11	86	1,677	61	86	1,700	86	84	1,511	50	71

사. 시범연구학교 지정

연도	'74~'75	'73
지정구분	도지정 연구학교	군지정 연구학교
영역	미술과	국민정신교육
주제	창조적인 표현력 신장을 위한 공예학습 지도 방법의 연구	충무정신 교육을 통한 건실한 생활 태도의 함양

아. 특색

- 기악부(바이얼린) 활동
- 전교생 곤봉체조 실시
- 어머니 장학회 운영
- 육설없는 학교 - 생활 5약속 선정(主 생활계획 반영지도)

자. 교육소신(경영 의지)

- 인화 중심으로 창의력 발휘
- 발랄한 마음으로 학력 신장
- 알뜰히 가꾸는 학교 환경

차. 특별활동 현황

- 1977년 : 육상(공던지기-여) 도평가전 3위
- 1980년 : 교기로 테니스 지정

⑩ 온양초사국민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초사리 112-5

- 나. 연혁 : 1949. 4. 1 온양국민학교초사분교장 개설  
 1949. 12. 1 온양초사국민학교 개교  
 1974. 3. 2 전기 시설  
 1978. 3. 1 12학급 편성  
 1978. 12. 3 전화 가설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김일런	1950 ~ 1952	7	정일희	1963 ~ 1969
2	박주화	1952 ~ 1956	8	이진형	1969 ~ 1972
3	정일희	1956 ~ 1958	9	김영덕	1972 ~ 1974
4	장례석	1958 ~ 1960	10	박정진	1974 ~ 1977
5	정일희	1960 ~ 1962	11	유달영	1977 ~
6	반몽수	1962 ~ 1963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계	13	1	1	11
남	10	1	1	8
여	3			3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학년별						
	계	1	2	3	4	5	6
학급수	12	2	2	2	2	2	2
인원	451	67	74	88	75	62	85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인원	2,166	224	58	74	51	96	63	60	96	98	90	96	108	97	113	106	104	109	70	99	65

사. 특색

- 자율활동 익히기
- 발표력 기르기

아. 교육소신(경영 의지)

-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사람
-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
- 깨끗하고 소박한 사람

자. 특별활동 현황

- 1973년 : 육상(넓이뛰기) 도평가전 3위, 전국대회 4위  
: 배구 도평가전 3위, 전국대회 4위
- 1980년 : 교기로 육상(던지기) 지정

⑪ 온양천도국민학교

가.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185

나. 연 혁 : 1955. 4. 1 실옥국민학교 설립 인가(온양온천국민학교에서 분리)

- 1955. 7. 1 실옥국민학교 개교
- 1955. 8. 3 온양천도국민학교로 개칭
- 1957. 2. 26 정규교실 6교실 준공
- 1962. 3. 1 15학급 편성
- 1971. 3. 1 30학급 편성
- 1979. 3. 1 38학급 편성

다. 역대 교장

대수	성명	재직기간	대수	성명	재직기간
초대	서기백	1955 ~ 1956	7	이성규	1966 ~ 1970
2	강태언	1956 ~ 1957	8	홍종석	1970 ~ 1973
3	김의배	1957 ~ 1958	9	홍맹선	1973 ~ 1976
4	정일희	1958 ~ 1959	10	승병목	1976 ~ 1979
5	임용빈	1959 ~ 1961	11	최상춘	1979 ~
6	명제순	1961 ~ 1966			

라. 교직원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계	41	1	1	39
남	24	1	1	22
여	17			17

마. 학생 현황

(1980년 3월 1일 현재)

학년별 구분		계	1	2	3	4	5	6
		학급수	38	6	6	7	6	7
인원	계	2,173	375	346	367	367	361	375
	남	1,093	198	168	159	195	196	177
	여	1,080	177	178	208	172	165	680

바. 졸업생 현황

연도별	계	'61년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5,522	677	83	99	97	97	138	130	123	245	206	231	324	351	319	352	333	329	380

사. 특색

- 개발원 학습 모형 적용 연구(산수과)
  - 밝은 마음회 어머니 교실 운영
  - 소녀 농구 선수단 육성
- 아. 교육소신(경영 의지)
- 생동하는 학교
  - 실력있는 학생
  - 땀흘리는 교사
  - 슬기롭고(智·知) 착하고(仁·德) 씩씩하게(勇·體)

자. 특별활동 현황

·1979년 : 농구(남자농구) 도평가전 1위

·1980년 : 농구(여자농구) 도평가전 1위

: 교기로 농구 지정

(3) 사설학원

① 문리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효성외국어학원	온양읍 온천리	80. 4. 25	곽원응	120	회화 3부	강사 2명
대일외국어학원	온양읍 온천리	80. 5. 26	김장복	120	회화 3부	강사 2명

② 사무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온양경리학원	온양읍 온천리	65. 7. 26	박정배	240	주산4부 부기2부	강사 2명
온양뉴타자 경리학원	온양읍 온천리	75. 4. 2	신완식	260	타자5부 주산2부 부기2부	강사 2명
천도타자경리학원	온양읍 온천리	76. 5. 11	박정희	280	주산3부 부기3부 타자4부	강사 2명
명문타자경리학원	온양읍 온천리	76. 6. 23	양병도	160	주산2부 부기1부 타자1부	강사 3명

③ 예능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온양관음미술학원	온양읍 온천리	79. 7. 16	홍순용	80	서양화2부 동양화2부	강사 2명
삼진미술학원	온양읍 온천리	80. 1. 25	박종덕	80	서양화4부	강사 2명

④ 기술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온양자동차기술학원	온양읍 모종리	72. 3. 23	송필수	160	보통6부	강사 4명

⑤ 독서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충무독서실	온양읍 온천리	80. 5. 7	이명근	65	독서	강사 1명

⑥ 체육계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온양체육관	온양읍 온천리	71. 8. 3	김환주	80	학생1부 일반1부	사범 1명
충무유도관	온양읍 온천리	72. 3. 23	이보상	60	유도3부	사범 1명
온양권투구락부	온양읍 온천리	75. 8. 22	이창준	60	권투3부	사범 1명
태권도온양도장	온양읍 온천리	77. 12.24	박만복	80	태권4부	사범 1명
대한민국합기도수련관온양분관	온양읍 온천리	75. 9. 25	윤한용	60	합기도3부	사범 1명

⑦ 유아교육

(198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명	소재지	인가일	원장	정원	편제	비고
선화유치원	온양읍 온천리	67. 3. 8	온양천주교회신부	80	?	교직원 5명
온양제일유치원	온양읍 온천리	80. 2. 29	온양제일교회목사	40	?	교직원 4명

### 3. 언론·출판

#### (1) 신문

온양 출신으로 중앙 언론계의 중신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원교로서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80년 12월 31일 현재의 신문 보급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	대전 일보	한국 일보	조선 일보	동아 일보	중앙 일보	경향 신문	신아 일보	서울 신문	일요 신문	현대 경제	서울 경제	기타
6,351	1,040	762	1,250	335	530	710	550	530	185	123	131	205

#### (2) 방송

온양의 방송수신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구수	마을수	보유수				보급률			
		라디오	전축	TV	마을앰프	라디오	전축	TV	마을앰프
8,807	47	10,077	1,615	9,485	47	114.4	18.3	107.6	100

#### (3) 출판

1949년 당시의 공보처장으로부터 신문 잡지 등 발행물의 출판권을 얻어 창설한 온양시사통신사는 매일 조식간으로 신문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을 거쳐 9·28 서울 수복 후 신문 잡지 등의 보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온양 지방의 주민들에게 새 소식을 전달하여 주는 데 기여한 바 있었다. 당시의 진영으로는, 이정진이 발행인이고 편집에 심승택, 총무에 소일영, 업무에 로영수가 맡아 경제통신사의 양해하에 매일 오전 오후로 단파수신기로 뉴스를 청취하여 신문을 타블로이드판 등사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1962년 3월 1일 당시의 아산군수 심춘택은 온양문화원장 박노을에게 아산군 민보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 발행 부수는 1회에 1,400부, 발행회수는 매주 1회, 규모는 프린트로 된 타블로이드판으로 내용은 군정소개가 30%, 지방소식 20%, 공지사항 20%, 물가시세 등 생활정보 10%, 문화기사 10%, 유관기관 시책소개 10% 등으로 구분하여 꾸며져 있었다. 진영 진영으로는, 발행인은 아산군수 심춘택이고 편집인에 내무과장 전준기, 주필겸 인쇄인에 온양문화원장 박노을이 맡아보았다. 발간은 1962년 3월 1일 그 첫선을 보였으나 재정난으로 발간 부수가 1,400부로 제한됨에 따라 군민에게 유익하고 알찬 소식지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 후 1968년도에 '아산공보'라는 타블로이드판 인쇄물이 아산군 공보실에서 매월 1회 1,000부를 제작 발간하여 홍보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978년도 충남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아산군 출신 출향인사 및 아산군내에서 봉직하고 떠난 인사들에게 새로운 군정홍보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미담, 인사, 방문 등 동정에 관한 것을 '아산소식지'라 이름하여 온양문화원에 의하여 매월 1회 16절지 크기로 700부를 한도로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그리고 아산군에서는 관광지 온양을 소개하기 위한 '관광홀타'를 제작한 바, 내용은 개략적인 안내도와 온양 시가지 전경, 명승지, 호텔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1974년에 1,000부, 1977년에 2,000부, 1980년에 1,000부, 1981년에는 그 내용을 새로운 스타일로 보완하고 영문병기 제작하여 온양 일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소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 외, 각급 기관에서 제작한 출판물은 자료미비로 자세히 소개할 수 없으나, 그 중 온양민속박물관 출판부에서는 '온양민속박물관' 등을 소개 책자로 제작하여 활용한 바 있다.

이상은 주로 군내에서 출판된 출판물 개황이고, 광복을 전후하여 군내의 인사들이 온양지방에 관련된 인물이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발행된 출판물과 군외 진출 인사들의 주요 출판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출 판 물
광복전 군외에서의 출판물	?'충무공가승' 육권 : 조선신령현감 이홍의 최집기고조삼도통제사 이순신(1545~1598) 사적 저. 관북관찰영장 인지삼첩삼장 ('누판고' p.63)
광복후 군내인사의 출판물	?'북천유교' 이권일책 : 강학년, 온양강씨종중 1962.
郡外進出人士의 主要 출판물	<산문집> ?이어령수상집 '지성의 오솔길' (수상선집 제2집)(자서) 서울 동양출판사 1960. 6. ?이어령수상집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서울 현암사 1961. 1. ?이어령평론집 '오늘을 사는 세대' 서울 1962. ?이어령수상집 '흙속에 저 바람속에' 서울 현암사 1963. 12. ?이어령수상집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서울 현암사 1965. 9. ?이어령컬럼집 '고독한 군중' 서울 경지사 1965. 9. ?이어령평론집 '저항의 문학' (개제 '통금시대의 문학') 서울 예문관 1975. 11. ?이어령평론집 '유형지의 아침' 서울 예문관 1965. 12. ?이어령소설집 '장군의 수염' 서울 동화출판공사 1966. ?이어령수상집 '제오계절의 인간들' 서울 삼중당 1966. 5. ?이어령수상집 '증언하는 캘린더' 서울 삼중당 1966. 5. ?이어령수상집 '너와 나의 거리' 서울 삼중당 1966. 5. ?이어령수상집 '차 한 잔의 사상' 서울 삼중당 1967. 4.

	?이어령평론집 ‘전후문학의 새물결’ 서울 친구문화사 1967. 3.
	?이어령 저 ‘한국인의 정신적고향’ (상?하) (한국과 한국인 제1?2권) 서울 삼성출판사 1968. 11.
	?이어령 저 ‘노래여 천년의 노래여’ (한국과 한국인 제3권) 서울 삼성출판사 1968. 11.
	?이어령 저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 (한국과 한국인 제4권) 서울 삼성출판사 1968. 11.
	?이어령 저 ‘웃음과 눈물의 인간상’ (한국과 한국인 제5권) 서울 삼성출판사 1968. 11.
	?이어영 저 ‘사랑과 여인의 풍속도’ (한국과 한국인 제6권) 서울 삼성출판사 1968. 11.
	?이어령 저 ‘저 물레에서 운명의 실이’ 서울 범서출판사 1972.
	?이어령 저 ‘이어령전작집’ 서울 동화출판공사 1969. 9.

#### 4. 언어·문학

##### (1) 언어

한국 방언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시 언어는 북방계의 부여어와 남방계의 한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한어라 하면 진한어, 변한어, 마한어를 말한다. 이 계통을 방언지도로 나타내었는데, 그에 의하면 부여어의 중심세력은 만주에 있었으나 후에 일부 부족들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 자리 잡았지만 계속 남하하고 있었으며, 또 일부 부족들은 별도로 간도를 거쳐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오늘의 함경도에 옥저어를 이루고, 강원도 북경까지 내려와 예맥어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남방계 한어는 동남에 변진어, 서남에 마한어, 중부에 진한어로 갈리게 되니 이것이 대체로 서기 전의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 후 북방계 부여어족의 유민의 남하로 진한어에는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고, 다분히 북방계 부여어의 침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남북방 양계 언어의 접촉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반도내의 언어의 공백 지대는 대체로 메워진 셈이다.

온양 일대의 방언은 이 주장에 의하면 마한어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언어적 분포는 옛날의 지명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백제는 마한의 옛 땅에 세워진 나라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마한어는 삼국시대에는 백제어가 되는 셈이다. 백제어의 지명의 특징은 부리로 나타나 있다. 고구려 말에는 홀자가 많이 붙는데, 이 홀은 지명의 말미에 붙는 것으로 이것은 본래 pul형의 발달로서 xol이라고 본다. 즉, 촌락·시·주거의 집단들의 원의일 것이다. 이 골(홀)이 신라어에서는 화가 어미에 붙어 쓰였는데, 이 화는 반드시 ‘불·불’로 불렸을 것이니, 그 뜻은 같은 촌락·시·주거의 집단이며 여기서 고구려어의 xol에 대하여 pul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같은

남방계인 백제어의 지명과 대조시켜 그 계통을 알아보기로 한다.

·백제어(부리형)

- 소부리 : 부여, 사비- 고양부리 : 청무, 청양
- 부부리 : 회미- 미동부리 : 현웅, 남평
- 모량부리 : 고창 - 이릉부리 : 능성
- 파부리 : 부리, 복성

이 부리는 신라어의 불·불에 대응되는 puri일 것이다.

여기서 ‘화’형 지방은 오늘의 경상도와 일치하며 ‘부리’형은 오늘의 충청남도 중부까지 퍼졌고, ‘홀’형은 인천, 수원 안성, 그리고 충청북도의 음성까지에도 퍼져있다. 이런 점에서 온양 일대의 언어는 남방계의 마한어에서 백제어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국방언사의 중세 국어의 고찰에 의하면, 황해도 일대는 ‘ㅅ-ㅌ-ㅇ’의 경로로 발달하였고, 그 외는 ‘ㅅ-ㅇ’의 발달로 되어 있는데, 온양 일대에는 아직도 이런 언어현상이 남아 있어 ‘가위(협)’를 ‘가새’로, ‘냉이(제)’를 ‘나생이’ 등과 같이 발음한다.

온양 일대는 지난날에 진한어와 마한어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말에는 현재도 ‘ㅅ’과 ‘ㅇ’이 교차하여 쓰인다.

- 아우본다(생제) → 아수본다
- 여우(호) → 여수           ·가(변) → 갓
- 가위(협) → 가새           ·냉이(제) → 나생이
- 마을(촌)가다 → 마실가다 ·무우(청) → 무수
- 잇다(계) → 잇어

온양 일대의 방언이 서울에서 이백여 리 안팎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대답하는 말이나 일반 언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옛날 두 계통언어의 교차점이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관계가 매우 깊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 (2) 문학

온양 지방의 문학은 온양읍내에 소재하는 설화산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대거 배출되었고 또 이 설화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많이 나왔다는 지리적 풍물과의 연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유명한 맹사성은 이 설화산 줄기 아래의 배방면 중리에 살았으며, 현대문학의 거성인 문학평론가 이어령과 서사문학의 거목인 춘해 방인근, 이기영 등이 모두 설화산 아래 온양읍 좌부리와 읍내리 출신이고 보면 설화산은 확실히 온양 지방 문학의 토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온양 지방 각 학교의 교가 가사어나 지역 문학지, 학교 교지 등의 제호에 이 설화산이 빠지는 예가 없다.

한 편, 이어령의 초청 문학강연회가 많은 회수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온양문화원은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들로 구성된 문학 동호인회의 활동(창작시 발

표회, 작품활동을 통한 회지 발간 등)을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다.

1964년부터 1965년 사이에는 이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당시의 문교부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항 백일장이 열리면 곡교천변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 하에 거행되는 큰 행사도 개최된 바 있었고, 오산 이은상 초청 문학강연회가 온양극장에서 마련된 일도 있었다. 1978년에는 시인 서정주의 초청 강연회를 동국대학교 아산군 동창회 주최로 온양여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일이 있으며, 시인 박목월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단의 중진들이 열리면 백암리 소재 충무교육원 강당에 모여 문학활동을 가졌고, 소설가 정비석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단의 중진들은 온양에 내려와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작품을 구상하거나 집필하면서 온양과 깊은 인연을 갖기도 한 일들이 있다. 또 한글학자 한갑수는 이충무공정신선양회 임원들과 함께 온양 지방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에 직접 참여하고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지방 문예육성에 힘써준 일도 있다.

이 지역의 문학단체로는 청록회, 청음회, 아산출신 재경학생 아산문우회, 아산문우회, 아산문학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한편, 문학의 밤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온양문화원에게 개최하고 회지를 발간하여 향토문예 진흥에 이바지한 일들이 있다.

일반 문학동호인회중 특기할 만한 활동사항으로는, 1970년 4월 5일 학문연구 및 교양과 인격도야,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창달 도모라는 목표 하에 온양고등학교 제22회 졸업생인 이교식, 임춘수, 전영수, 백남효, 김현우, 박노웅 6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직된 아산문우회의 당시 회원은 졸업생 56명과 재학생 18명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70년 창립 이후 발간 책자로는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문우(회지) 8집이 있다.

그 외 활동으로는, 1981년 10월 3일 온양문화원에서 문학발표회 및 작가 정연웅 초청강연회를 가져 3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으며, 1976년 5월 정진삼 목사의 발기로 창립된 아산문학회는 군내 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바, 정진삼 목사의 지도아래 회장 김종문이 문학회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1976년 창립 이후 백합들의 합창(시집) 2집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단체 명칭을 '머루네'로 고쳤으며 전과 달리 남녀 학생들과 일반인도 포함하여 2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진삼 목사는 1976년부터 해마다 군내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과 취미를 갖게 하고, 작품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위한 뜻에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자신의 작품과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작품 등을 전시품으로 다듬고 손질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전시하는 등 지역 문학 발전에 노력하였다.

<온양 지방 학교의 주요 문학 및 학술행사 참여 현황표>

행사명	학교명	출전자	작품	입선내역	주최	연도
이충무공 탄신 기념 백일장	아산중학교	신동수	충무정신	우수상	아산군교육청	1979
소비절약 글짓기대회	"	신동수	소비절약 수기	최우수상	"	"
조선일보사	온양여자중학교	김인순	미상	문예상	조선일보사	"

글짓기대회					
-------	--	--	--	--	--

<온양 지방 주요 문학 및 학술지 발간 현황표>

단체명	책자명	내용	부수	매수	발행년도
온양온천국민학교	학교신문(월간)	학교소식, 학생들의 작문	300	1	1978
온양동신국민학교	푸른샘	아동문예 및 교양	500	2	1979
온양천도국민학교	푸른꿈	"	2,500	4	"
아산중학교	교지(저은, 아산, 상아) : 연간	교사 및 학생학술문예작품	750	70	1960
아산고등학교	교지(저은, 상아) : 年刊	"	900	60	1976
온양여자고등학교	온화	"	2,000	110	1979
청록회	회지	시, 수필, 콩트, 독후감	200	50	1965
청음회	"	시, 수필, 콩트, 산문	200	60	1965 ~ 1969
아산문우회	"	시, 수필, 콩트	200	25	1970
아산문학회	백합들의 합창 (시집)	시	1,000	50	1976

## 5. 예술

### (1) 음악

#### ① 개요

온양 지방에 있어서의 음악에 대한 자료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기술하자면 맹사성의 피리 음악을 비롯해서 온양지방 출신의 국악인으로 명성을 떨친 성락준(1900년대 초기 보령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시조를 주로 연구발전 시키는데 진력하여 당시의 충청관찰사 김만수로부터 좌도경장의 칭호를 받은 강석정의 후배) 등이 있다.

온양 지방에서 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은 온양문화원이 1962년에 초청음악회 형식으로 베포서울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생들로 구성된 초청음악회가 음악회다운 행사로서의 처음이었다. 1968년 7월 온양문화원 주최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종구 작곡발표회와 겸하여 마련된 초청음악회가 두 번째였으며, 1972년 8월의 온양문화원 주최 일본 시즈오카현 아다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음악회, 1976년의 온양고등학교동창회 주최 서울기독교교향악단 초청음악회 등이 대표적인 음악회였다.

이 밖에도 대전에 있는 공군기술학교군악대의 연주회, 미군 군악대의 연주회, 해군본부군악대의 연주회, 육군군악대의 연주회 등의 행사가 이충무공탄신기념행사일을 전후하여 온양지방

에서 이뤄진 일이 있다. 또 온양 읍내 교회의 성가대를 주축으로 한 합창단의 공연이 가끔 있었으며, 서울시교육위원회가 편성하여 현충사까지의 행군단 일행으로 대표학생들과 함께 이충무공탄신기념제전에 출석하는 서울시 학도호국단 대표 블라스 밴드단의 온양역전 광장에서의 연주공연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온양문화원의 지원을 받는 연주발표회가 수시로 개최되어짐으로써 음악애호가들의 절찬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온양고등학교악대는 1956년과 1957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의 전국남녀고등학교학생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관악합주부문에서 각각 2등과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온양고등학교악대의 발전에는 前충청남도교육감 이종호와 장일환 교장선생의 지원과 임만기 선생의 실기지도의 공이 지대하였다. 온양고등학교악대에 이어 아산고등학교의 악대가 1977년 탄생하여 1978년과 1979년 사이에 2회에 걸쳐 온양문화원 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아산중학교의 고적대와 온양온천국민학교의 어린이고적대가 한동안 연주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이 중 온양온천국민학교 어린이고적대는 1981년 6월 재창단 되어 현재 60인조로 활동 중에 있다. 이뿐 아니라 온양온천국민학교는 1978년 60인조의 현악악대를 창단하여 연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온양 지방의 음악애호가들이 목요음악 감상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당시의 온양관광호텔과 시내다방 등을 순회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음악감상회를 개최한 일도 있다. 특히 목요음악감상회 때는 임만기, 이원구 등 음악인들의 해설과 흥원율, 박주철 등 음악애호가들이 음반과 전축을 동원 조달하는 등 남다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현재 활동중인 음악 단체로는 먼저 어머니 합창단이 있다. 어머니 합창단은 1974년 창단된 단체로 가정주부로부터 각 직장의 여성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출연하기도 하고, 주로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도내 각 시군건전가요 합창단 경연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는데, 여러 번 상위권 입상을 하기도 하였다. 또 에텐노래 선교단은 에텐노래 선교회 소속으로 1978년 7월 창단되었는데, 음악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건전사회의 기풍진작과 교회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온양 지역의 교회에 소속된 여고생 가운데 음악적 자질이 뛰어나고 신앙이 돈독한 24명의 단원과 임창섭, 김은숙 부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초교파적 선교회로서 선교용 버스(32인승)를 소유하고 있다. 그 동안 모산 감리교회에서 청소년 선도 대전도대회협찬행사를, 육군 제3585부대에서 건군 30주년 위문 연주회를, 온양극장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선음악회와 모범청소년위안연주회를, 온양관광호텔에서 아산군민을 위한 조찬기도회 출연을, 나사렛 성결교 남부연합교사강습회 초청연주회 출연을, 공주교도소 위문연주회 30여 회 등의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그리고 교회 및 교계단체의 특수행사 연주회를 10여 회 개최하였으며, 1978년 12월 이후 해마다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눈부신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에텐노래 선교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장 : 김은숙

·운영위원장 : 김광현 (온양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

·사 무 장 : 임창섭

·지 휘 자 : 오종환

·단원 구성 : 소프라노 8명, 메조소프라노 7명, 알토 7명, 기타 2명

② 온양 출신 음악인

가. 임만기

온양읍 용화리 출신으로 서울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1956년 3월부터 1961년 6월까지 온양고등학교에서 제직하는 동안 온양 지방의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특히 이 무렵의 온양고등학교악대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그 연주실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온양지방 직장인들의 정서생활을 돕고 이 지방 음악문화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갖은 목요일음악회에서 해설을 전담하여 많은 음악을 보급시킨 바 있으며 문하에 많은 음악인을 배출하였다.

1961년 이후부터는 대전고등학교로 전직하여 충남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였다. 특히 대전 관현악단을 창단하여 상임 지휘를 맡아오던 중 대전시립교향악단을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대전 수요일음악감상회를 18년 간이나 주도하여 오고 있으며 대전 한국은행 음악감상 모임을 지도하였다.

현재는 유성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충남예총부지부장과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장으로서 음악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 안성희

온양출신으로 한때는 우리나라 가요계의 비중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음악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외국으로 이민 가서 국내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학교 음악활동

가. 국민학교

<음악발표회>

학교명	발표내용	발표장소	출연자수	관람객수	시행연도
온양국민학교	올겐 연주	본교 교실	75	400	1978

<음악경연대회 출전>

학교명	출전대회명	출연자명	입상내역	출전년도	비고
온양은천국민학교	제18회 충남 도내 음악경연대회	김은례	금상	1979	주최:충남도교육위원회
	대전지구 월음 콩쿨	오지연	1위	1980	

나. 중학교

<음악발표회>

학교명	발표내용	발표장소	출연자수	관람객수	시행연도
아산중학교	합창, 합주	온양문화원	56	350	1979

<음악경연대회 출전>

학교명	출전대회명	출연자명	입상내역	출전년도	비고
아산중학교	밝은 노래 부르기 대회	조성진 외 55명	무임소 장관상	1979	
온양여자중학교	동아음악경연대회	서영화	입상	1978	
	건전가요경연대회	50	"	1979	주최:아산군교육청
	아산?천안지구 음악경연대회	서영화 강연지	"	"	
	음악경연대회	서영화	"	"	주최:충남도교육위원회

다. 고등학교

<음악발표회>

학교명	발표내용	발표장소	출연자수	관람객수	시행연도
온양여자고등학교	합창, 중창, 독창, 합주	본교 강당	140	800	1977
	"	"	125	1,000	1978
	"	"	130	1,000	1979
	"	"	140	1,100	1980

<음악경연대회 출전>

학교명	출전대회명	출연자명	입상내역	출전년도	비고
온양여자고등학교	도내음악경연대회	오미선 외 1명	동상	"	"

### <악대 활동>

#### ·온양고등학교악대(1974년 창설)

- 1954년 : 유용호(밴드부장) 도내남녀고등학생 독창경연대회 우승
- 1956년 : 제9회 서울대학교음악대학 주최 전국남녀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준우승  
(관악합주부문)
- 1957년 : 제10회 서울대학교음악대학 주최 전국남녀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우승(관악합주부문)
- 1977년 : 충남 도교육위원회 주최 음악콩쿨 3등 입상(관악합주부문)
- 대외활동 : 온양읍내 및 군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아산고등학교악대(1977년 창설)

- 연주회 : 교내, 교외 연주회 개최(1979 ~ 1982)
- 대외활동 : 온양읍내 및 군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역사가 짧지만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2) 미술

### ① 온양 출신 미술인

#### 가. 조선시대 미술인

##### ·정립 (자: 사결, 호: 북창, 관직: 현감)

- 출생지 : 미상
- 년 대 : 중종원년(1506) ~ 명종4년(1549)
- 부 문 : 산수화

##### ·방우도 (자: 신백, 호: 우산)

- 출생지 : 미상
- 년 대 : 정조14년(1709) ~ ?
- 부 문 : 산수화

##### ·방의용 (자: 성중, 호: 난석)

- 출생지 : 미상
- 년 대 : 순조5년(1805) ~ ?
- 부 문 : 산수화

##### ·방윤명 (자: 노천, 관직: 검사)

- 출생지 : 미상
- 년 대 : 순조27년(1827) ~ 고종17년(1880)

- 부 문 : 매화, 난초, 서예
- 방천용 (자: 인여, 호: 하상, 관직: 부사)
  - 출생지 : 미상
  - 년 대 : 순조33년(1833)~?
  - 부 문 : 산수, 절기에 능하였음

나. 동양화

- 김화경 (호: 유천)
  - 출 생 지 : 온양읍
  - 출생년도 : 미상(사망)
  - 경 력 : 동경제국미술대학원전문부 졸, 선전입선 4회 초대 작가, 국전심사위원회 동양화분과위원장, 대학교수

·남용희

- 출 생 지 : 온양읍
- 출생년도 : 1934년
- 경 력 : 동양화 독학으로 수회에 걸쳐 전시회 개최

다. 서양화

- 이수현 (본명: 원용)
  - 출 생 지 : 온양읍 온천리
  - 출생년도 : 1930년
  - 경 력 : 일본동경미술학교서양화가 졸, 한국현역작가 100인전 출품, 아시아현대미술전람회 출품(동경), 목원대학교수

·이덕령

- 출 생 지 : 온양읍
- 출생년도 : 1916년
- 경 력 : 경성중등학교 졸, 개인전시회 5회, 전 온양여자중학교 교장

② 미술동호인 단체

가. 온양미술 동문회

- 조직 : 온양고등학교 출신 동문미술인들이 1980년에 조직
- 회원 : 이주영, 이종식, 이만우, 정명남, 이윤영, 최효순, 이용직, 정정수, 이원섭, 김석환

- 활동 : 매년 고향에서 ‘향’ 이라는 이름으로 미술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제1회 미술전시회를 1980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온양 제일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나. 온양 일요서가회

- 조직 : 미술을 좋아하는 직장인들과 미술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모여 일요일을 택해 미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1978년에 조직
- 회원 : 10명(회장: 양준호)
- 활동 : 미술전시회 개최 6회

#### 다. 미술교사회

1980년 7월에 발족한 미술교사회는 온양의 전통문화면에 활력소의 역할을 하여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들의 개인적인 연수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유능한 존재로서 발돋움 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본회의 회장에는 初代로 온양중학교의 장한수 교사가 선임되었는 데, 이 회장직은 군내 중고교 미술교사들이 해마다 윤번제로 하기로 되어 있다. 조직된 지가 일천하여 특이할 만한 활동사항은 없으나, 회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 ③ 미술전시활동

광복 이후에는 당시 신정관(현 온양관광호텔) 휴게실에서 동양화전시회가 가끔 개최되었을 뿐이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서울에서 피난을 내려온 선전 작가 허훈이 김화경과 남용희 등과 더불어 전쟁으로 온양시가지가 폐허화된 상황 하에서도 교회의 지하실과 이 고장에서 단 두 곳밖에 없었던 다방중의 하나인 새마을 다방을 이용하여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정도였 다. 그 후 김화경 화백이 지방문예진흥을 위한 집념으로 충남도내작가전을 개최한 바 있어 이 고장 미술 발전에 끼친 그의 공이 대단히 컸다.

온양문화원에서 1958년을 전후하여 남용희의 동양화 전시회를 비롯 윤학로 화백의 전시회 가 매년 5~6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온양문화원 주최 아산군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미술작품 공모를 지난 1976년부터 1981년 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입선된 작품을 온양문화원 전시실에 전시하였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회에 걸쳐 일본 스즈오까 아다미 시내 국민학교 및 중학교 학생 들의 미술작품을 작품교환 계획에 따라 군내 각급 학교에 순회 전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선발하여 스즈오까 아다미 시내 각급 학교에 순회 전시를 실시하였다.

1978년부터 매년 온양청년회의소 주최로 아산군내 국민학교 학생 미술공모를 실시하여 엄 선된 작품을 온양청년회의소 자매결연처인 일본 다찌가와(입천) 각 국민학교에 순회전시를 실 시하고 있다.

일요화가회에서 회원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전시를 1978년부터 매년 온양읍내 여 러 다방에서 개최하고 있다.

온양문화원 홀을 이용하여 아산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전시회가 197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타 학교미술 전시활동>

학교명	행사명	전시장소	작품수	작품내용	관람자수	전시년도
아산중학교	미술전람회	온양 신용협동 조합	170점	그림, 조형, 서예	500	1978
아산고등학교	미술전람회	본교 교실, 온양문화원	185점	회화, 조각, 서예	1,850	1977
	상아제	"	157점	음악경연연극, 회화 조각 등	2,900	1979
온양여자고등학교	설화제	본교 교실	295점	회화, 수예품, 서예, 병풍	2,500	1978

④ 미술대회 응모현황

대회명	주최	연도	학교명	작품	응모학생	입상내역
군내국민학교대항	온양문화원	1979	온양동신국민학교	새마을 사생	이명호	특선
한일학생작품교류	온양청년회의소	"	"	우리어머니	유지연	"
이충무공탄신기념 사생대회	아산군 교육청	"	아산중학교	정물화	이범용	금상
소년체전전국아동 미술작품전	대한체육회	1980	온양중학교	소년체전 작품	한창식	특선
충남도내 초중고 미술대회	충남교육위원회	1979	온양고등학교	동양화	박종식	1위
전국 초중고 미술대회	송전대학	"	"	수채화	윤태휘	특선
충남도내연합작품 전시회	충남교육위원회	"	온양여자고등학교	커튼	박양규	가작
전국학생미술 실기 대회	목원대학	"	"	미술실기	박현자 외 4명	특선
"	"	"	"	"	최순숙	최고상

⑤ 주요 공예품

·불종

1974년 정업원에서 제작(제작자:서울범종사)한 중량이 1천근에 높이 1m, 직경 73cm, 두께

3cm 규모의 용천상 무늬를 띤 청동제 범종이다. 현재 온양읍 용화 2리에 소재하고 있다.

### (3) 서예

#### ① 과거 온양 출신 서예인

- 1523년생 한석현(호: 만죽현, 군수) - 서
- 1533년생 한석석(호: 고옥, 좌낭) - 서
- 1597년생 한두향(호: 동명자, 홍문어제학) - 서
- 1560년생 맹만택 - 서
- 1790년생 편우도 - 서
- 1805년생 방의용(호: 난석) - 서, 화
- 1827년생 방운명(호: 노천) - 서
- 1833년생 방한익(호: 지산) - 서
- 1833년생 방천용(호: 하상) - 화
- 1836년생 맹수시 - 서, 화
- 1862년생 장수년(호:호우) - 서

#### ② 현대 온양 출신 서예인

##### 가. 이기원

- 출 생 지 : 온양읍
- 출생년도 : 1920년
- 경 력 : 북경대 졸

##### 나. 김영호

- 출 생 지 : 온양읍
- 출생년도 : 1921년(사망)
- 경 력 : 직업사진사였으나 틈틈이 서예를 연마함.

온양지방 청년운동 및 온양번영회 등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

개인전시회 개최(온양문화원)

##### 다. 박명수(아호: 하정)

- 출 생 지 : 온양읍 기산리
- 출생년도 : 1920년
- 경 력 : 지방행정공무원

아산군 교육청관리과장

#### (4) 연예

은양 지방에 대중 연예활동의 전당이며 제공처의 역할을 해온 상설극장으로 문을 처음 연 곳은 천락관이었다. 1926년경 은양에 처음으로 생긴 천락관은 그 시설만 해도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상설극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극장이라야 지붕과 서면의 벽이 모두가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설 극장과 비슷했지만 당시로서는 이 고장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경남철도(현재의 장항선) 회사의 부사장 아끼모도(秋本)가 그 당시의 명소인 신정관(현재 은양관광호텔)의 부대 시설로서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천락관에서는 주로 요양소에 있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 공연장으로 쓰여졌고, 가끔 영화나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이 극장에서 상영되던 무성영화에 관객들은 흥분되기가 일쑤였고, 장화홍련전 등의 연극을 관람하면서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극에 도취되는 등 실로 당시로서는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이 극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지각없는 청소년들이 심술궂게 돌을 던지는 통에 연극이나 영화가 공연 내지 상영될 때면 온통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잠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었다. 그러나 이 천락관이 생김으로써 이 고장의 대중문화를 전수하고 마음의 안식처로 기여한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던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책에서 나온 근성은 이 극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극장의 운영권은 물론 모든 지휘 감독체계도 일본인들이 도맡아 하였다. 차별대우의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동 극장의 앞자리와 관람하기 좋은 자리들은 모두 일본인들의 전용 좌석으로 그들만이 이용하게 하였으며 뒷좌석과 입석 등에 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지가 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 극장에서 연극이나 영화가 공연하게 되면 이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내 일원을 악대가 돌아다니며 광고를 했다.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 공연이 없을 때에는 갖가지 문예활동을 수시로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故人이 된 홍남표가 당시의 빅터 레코드에 취입까지 한 관록 있는 노래 솜씨 때문에, 그리고 일본 동경 음악학교에서 전공한 바이올린 솜씨가 뛰어난 이유로 유석환 등이 가끔 당시의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한 공연에 초청되어 우리말 노래와 애환이 깃들은 옛 노래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아리랑, 검사와 여선생 등의 영화와 연극이 공연되어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이토록 갖가지 화제 거리가 엮히고 설킨 이 천락관이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 되자, 그나마 오락이나 연예에의 갈증이 컸던 주민들의 실망은 컸었다. 그러나, 1년 남짓 후쯤 천안에서 건축업을 경영하던 일본인 목촌이 무슨 생각에서 였는지는 몰라도 당시 천안에도 상설극장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은양에다 상당한 거액을 들여 비록 200여 석에 불과하지만 목재구조의 2층 건물로 상설극장을 건립하니, 이것이 은양지방에는 천락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긴 극장이 된 것이다. 이 상설극장의 명칭은 은양극장이라고 붙여졌다. 이 때부터 연예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충남도내에는 대전을 빼고는 이러한 훌륭한 극장 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은양극장이 새로 등장하게 되자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영화와 연주단 공연이 주기적으로 공연되어졌으며, 청춘파, 호화선, OK 악극단 등 국내 일류급 흥행단체들이 몰려 공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당시 조선 극단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며 연극을 공연하는 것은 참으로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광복과 더불어 은양극장의 운영 상황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광복을 경축하는 갖가지 대중집회가 이곳 은양극장에서 연일 계속 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 은양지방의 유일무이한 대

중집회소로 불리던 이 온양극장에서 좌익분자들이 재빨리 인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이어서 우익진영인 독립축성회가 여기에서 결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소용들이 속에서 흥행물이 등장될 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어서 극장관람에 굶주린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 무렵 당시 우익진영 단체인 독립축성회의 청년부에서 소인극 그룹을 창립하였다. 이 소인극 그룹에서는 애국심과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연극을 시도하여 이정진, 이주진, 허정, 엄석창, 강근식 등 10여 명이 모여 안중근 의사, 김상옥 열사 등의 애국심을 소재로 한 소인극들을 공연하여 미흡한 내용과 연기지만 많은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었다.

강근식의 각본과 장치, 분장 등으로 이루어진 소인극 안중근 의사 등이 공연될 때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너무 억눌려 살았던 터이겠지만,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인극이 무대에서 공연되는 도중 관객들은 관람석에서 연극에 도취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일어서는 관객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관객들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 일본 경찰로 분장하고 연기하는 한국인 연기자의 먹살을 잡고 두들겨 패는 진풍경도 많았었다. 이 무렵 소인극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노래 콩쿨 대회도 소인극 못지 않은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였다. 물론 일제침략 하에서 마음 놓고 우리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한 한도 있었겠지만, 노래 콩쿨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입주의 여지없이 대성황을 이루곤 했었다.

이러한 당시의 온양극장의 운영은 전에 일제 하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의 손에 의해 자치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봉사 활동이었다. 그러다가 온양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자 주둔하는 미군들의 위안 공연을 위해 간간이 온양극장이 이들에게 빌려지기도 했었다. 미군들은 당시의 온양극장 무대를 사용할 때마다 무대 바닥을 새로 깔고 또 조명시설도 특별하게 갖추어 놓고 공연을 하였다. 그 덕분에 온양극장은 이 무렵 항상 깨끗한 시설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경영주가 없는 온양극장이 대중 집회소로 또는 흥행장으로 요긴하게 이용되어 오다가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전쟁 중에 극장은 폭격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천락관 시설부터 온양극장이 있기까지 10여 년 동안 헐리고 설킨 갖은 화제 거리를 간직하고 있던 온양의 명물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서울 수복과 더불어 차츰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극장시설의 필요성이 차츰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이동흥행장(가설극장)이 등장하여 사방을 광목천으로 치고 노천에서 16mm 영화를 상영하였고, 당시의 충남차부(현재 금강여관신관 자리)의 차고에서 툭툭이 영화를 상영한 바 있었다. 이 당시 ‘씨네마 온양’이라는 것이 생겨(지금의 송악철공소 뒤 창고) 제법 본격적인 흥행장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동방회관의 건립으로 16mm 영화상영과 당시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국악단의 무대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현재의 온양극장이 강필선의 투자로 현대식 건물로 완공 개관됨에 따라, 이후 온양지방의 유일한 흥행장으로써 무대예술을 감상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이 고장 문화발전에 큰 몫을 해 왔었다.

#### 가. 공연장 현황

(1980년 12월 31일 현재)

공연장명	소재지	개설연도	폐관연도
온양극장	온양읍 온천리	1958년 6월	1973년 6월

동방회관	온양읍 온천리	1965년 6월	
------	---------	----------	--

극장		상영편수					관람인원수				
시설수	좌석수	계	한화	외화	연극	기타	계	한화	외화	연극	기타
1	769	26	15	10		1	10,996	6,478	4,336		182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나. 온양 출신 연예인

- 강계식 : 영화배우, 국립극단 단장
- 양 훈 : 영화배우, 코메디 영화출연
- 황 남 : 영화배우
- 이신재 : 탤런트, KBS-TV 탤런트 실장
- 강근식 : 시나리오 작가, 작가협회회장
- 이택균 : 영화배우
- 김영석(반석) : 영화감독

6. 문화단체·행사

(1) 문화단체

① 일반 문화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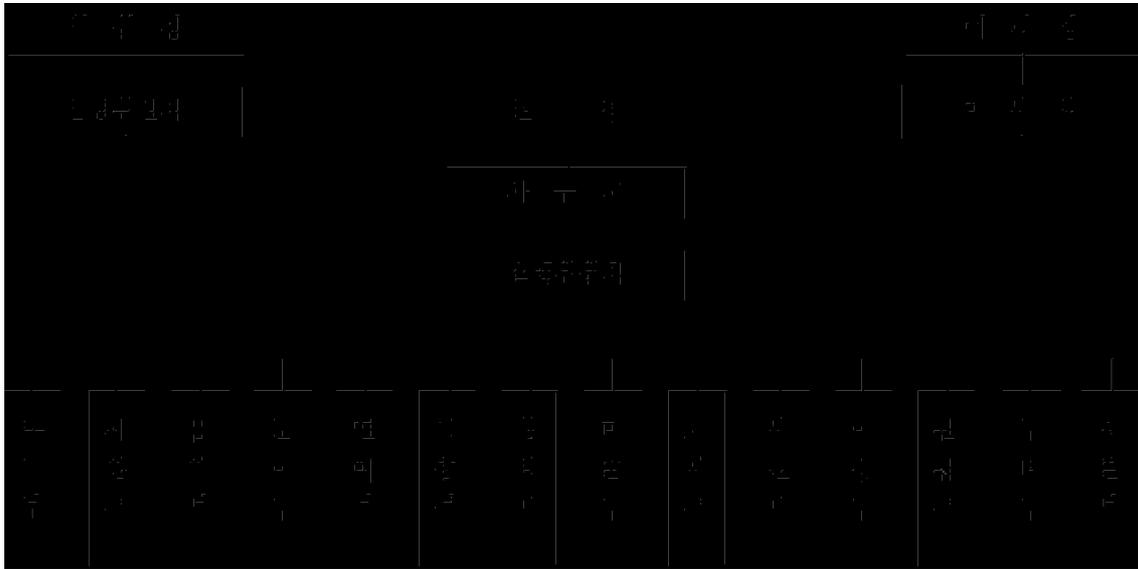
가. 온양문화원

- 소재지 : 충남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83
- 연혁

- 1957. 3. 20 : 현 원장 박노을이 운영하던 무료 직업소년학 교를 모체로 동교를 해체하고, 19명의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여 87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함.
- 1957. 4. 2 : 온양문화원 창립 총회 개최
- 1957. 5. 10 : 온양읍 온천리 57번지에서 개원
- 1961. 3. 1 : 수년간 5개소의 원사로 옮겨다니다가 현 원사로 이전
- 1964. 8. 26 : 지방 문화사업 조성법에 의거 법인 조직
- 1964.12. 24 : 공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함.

개원 이래 오랜 기간을 운영위원 또는 이사 등 300여 명의 임직원들의 피나는 희생적 정신과 애항심을 토대로 노력한 결과, 이제 온양지방의 유일한 문화기관으로 확고한 기틀을 이룩하고 있다.

·기구표



·사업 방향과 목표

건전한 모범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사명감에 충실하고, 일반 대중 상대의 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사회의 각종 서클 단위를 문화원의 사업 소화대상 1차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과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상대 서클에 지도하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문화원이 필요시되는 과제의 소화를 도와줌으로써 전문적 문화사업 집행기관으로 바꾸어 주며, 온양 지방에 있어서의 주민 생활 센터로 성실하고 건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생활의 반력자가 되어 주민과 정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종 서클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는 사업을 전개한다.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알차고 실속 있는 봉사와 일반적 내지는 초보의 경지를 넘은 각계 문화인들로 하여금 일반 대중과 자연스럽게 제휴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주고, 일반인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를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방 문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혹은 개인 위치의 매체와 보다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금껏 수행하여 왔던 홍보 매개체로서의 사업을 병행 사업으로 소화시켜 나가고, 원외 행사보다 원내 행사에 중점을 둔다. 또한 지방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계승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시설 및 장비

- 시설(원사) : 건평 107평(대지 186평)

- 장비

영사기 - 16mm	1대	전 축 - 소형	2대
8mm	1대	옥음기 - 대형	1대
발전기 - 1.5 kw	1대	소형	1대
300 kw	1대	전시판 - 이동용	20조
엠 프 - 150 w	1대	고정용	10조
100 w	1대	회의실용의자 - 대형	50개
50 w	1대	소형	350개

·역대 원장

대수	원장	부원장	재임기간
초대	강필선		1957. 4. 2 ~ 1959. 2.19
2	이복영	한상열, 이정진	1959. 2.19 ~ 1960. 4.30
3	장일환	박노을	1960.10.28 ~ 1961.12.31
4	박노을		1962. 1. 1 ~

·79년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세부 사업명	실적	동원인원	비고
영화상영	원내영화 상영	53회	18,000	교육영화
	원내영화 상영	22회	33,000	"
방송사업	공지사향 방송	230회		각급 기관 공지사향 및 생활정보
	국 도 군정 시책 방송	400회		매월 공보지침 등 활용
	국기 강하식 방송			매일 방송
전시사업	공보사진 전시	365일		문화원 전시관 활용
	각종 홍보물 전시	60회		학교, 공공기관 등 전시관 활용
	충남 명현 유품 전시회	1회	1,800	온양민속박물관 지원
	자연보호 포스터 전시회	1회	6,000	충남북 고교생 작품
	사진 전시회	1회	3,500	사진동호인회와 공동주최
	우표 전시회	1회	15,000	우체회와 공동 주최
	미술작품 전시회	3회	39,500	군내 초중고교생 공모전 일요화가회 작품전. 전국미술공모전
도서실 운영	신간도서 구입	60권		
	도서 수집	180권	180	출향인사 협조
	도서 대출	740권	292	주민 및 학생
	도서 열람	576권	576	
출판 및 간행물발간	아산소식지 발간	8,400부	8,400	매월 700부 발간 관내인사 및 출향 인사 등에 배포
	각종전단 인쇄	50,000매		4?28 행사 안내 전단 등
강연, 강좌 토론회	일반교육 강좌	3회	900	산악인교육, 부녀 꽃꽂이 등
	학술 강연	3회	1,500	국제정세, 생활과학, 충무정신

	각종 씨클 강습회	6회	3,000	우표취미회, 학생문우회, 미술동호인회
	각종 강습회	6회	1,500	요리, 서예 등
문화 계몽사업	응변대회	6회	3,000	청소년 선도, 교통안전, 반공, 저축 등
	예술제	3회	5,500	어린이날, 어버이날, 문화의 달
	음악회	2회	3,000	새마을부락지원 자선음악회, 음악동호인회 음악회 지원
	고교밴드 연주회	1회	3,000	
	이충무공탄신기념문화제	1회	40,000	축동행렬, 음악회, KBS 내고장만세 공연 방송
	일요화가 사생대회	6회	120	일요화가 친목회와 공동주최
	건진가요 경연대회	1회	500	음악동호인회와 공동주최
	목요음악감상회	6회	300	음악동호인회와 공동주최
회관활용	집회장소 제공	215회	75,000	
	무료새마을예식장 운영	24회	7,200	
기타사업	노인학교 운영	1회	50	60세 이상 노인 대상
	아산문제연구소 운영	1회	50	
	향토실 운영	2회	280	향토자료 발굴
	윤락여성선도상담실운영	1회	80	
	신년 교례회	1회	200	매년 1월 1일 온양문화원

#### 나. 온양문화제위원회

##### ·설립목적

매년 충절의 고장 아산에서 개최하여 오던 이충무공 탄신기념 지방적 경축행사를 거국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전군민의 총력 지원과 참여를 통하여 군민 대단합의 계기를 다지며, 전통적인 향토문화제로 승화시켜 군의 명예를 높이고, 군세 신장과 지방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소재지 :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87(온양문화원 내)

##### ·연혁

- 1982. 3. 7 : 가칭 온양문화제위원회 발기대회 개최 (발기인 박노을외 16인)
- 1982. 4. 9 : 온양문화제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구성 (1982년 4월 9일 현재)

직위	성 명
명예위원장(대회장)	아산군수
위 원 장	장일환
부 위원장	양준호, 김종환, 홍의선, 홍현식, 강태언
고 문	강필선, 김용섭, 김용환, 박영근, 성기선, 안병욱, 이복례, 장각진, 정선호, 한승규, 황명수

지도 위원	김세제, 김영진, 김재봉, 남정규, 박우승, 박원규, 백남은, 손악철, 안상춘, 오상범, 이문수, 이영원, 이은익, 이형구, 임광수, 주문식, 황수연
집행위원장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상임 위원	김갑부, 김금자, 김현철, 김형배, 나순오, 박길용, 서경원, 양치호, 이기영, 이기원, 이길영, 정갑용, 정수광, 채도병, 표창운
위 원	강태웅, 김기배, 김정국, 노수산, 변형규, 유달준, 이승구, 임공복, 정민영, 한종숙, 곽원웅, 김동설, 김종권, 노영갑, 석성수, 유인영, 이원식, 장철환, 조원국, 홍사덕, 곽대철, 김상철, 김종수, 박연창, 소병선, 윤명재, 이종호, 장홍식, 조중국, 홍신희, 김건중, 김연영, 김종인, 박영기, 신동희, 윤영중, 이종욱, 전봉자, 최 무, 황길풍, 김윤배, 김홍식, 박정화, 양영빈, 이명원, 이호식, 전익상, 편무신, 황창서, 김경배, 김재민, 남용길, 백윤현, 오만균, 이복록, 이홍복, 정경현, 한상열, 하안용
감 사	박창원, 이희용

#### ·사업

전야제, 군민위안공연, 문학과 미술행사, 국악의 행연, 자요경연대회, 시조경창대회, 가장행렬, 각종전시회, 외곽행사, 환경장식경진, 서막식, 충무정신선양사업, 경축행사, 기타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 ·주요활동사항

이충무공 제437회 탄신기념경축 온양문화제 행사를 각급 기관 및 단체별로 담당 책임을 정하여 개최함으로써 전 군민이 동참하는 향토문화행사로 승화시킨 바 있다.

### ② 학교문화단체

#### 가. 온양 불우 직업소년학교

·연혁 : 1956년 8월 박노을의 발기로 당시의 온양 시네마(극장) 자리에서 불우한 직업소년 309명을 모아 초·중등부로 나누어 8개월 동안 무료 교육을 실시하다가 교사 문제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위해 부득이 해체하게 되었다.

·강사진 : 박노을, 정한영, 이충구를 비롯한 지방 유지들 다수.

#### 나. 온양 직업소년학교

·연혁 : 1964년 10월에 개교하였으나 1972년 교사 문제와 운영난으로 해체함.

- 대표 : 김용렬
- 강사진 : 김용렬, 예조 데이빗(미국인 평화봉사단원), 최명렬, 이영호, 김준배, 최진
- 학생 : 중등과정 33명
-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역사, 한문, 음악, 도덕, 체육

### ③ 학교도서관

구분 도서관명	설치년도	평수	좌석수	장서수	연간 열람자수	연간대출 서적수
온양국민학교도서관	1976	20	30	1,950	614	1,263
온양초사국민학교도서관	1978	20	40	1,635	715	1,350
온양천도국민학교도서관	1977	20	40	2,224	920	1,905
온양중학교도서관	1979	40	60	2,740	1,846	857
온양여자중학교도서관	1978	20	60	2,020	1,560	498
온양고등학교도서관	1964	20	60	7,100	3,000	3,800
아산고등학교도서관	1965	28	60	6,882	3,000	3,700
온양여자고등학교도서관	1973	10	30	5,100	2,100	2,600
온양여자상업고등학교도서관	1977	15	40	4,000	2,000	1,500

## (2) 문화행사

### ① 일반문화행사

#### 가. 이충무공탄신기념 문화행사

1959년 4월 28일부터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소재 현충사에서 충무공 선양회가 주최하는 이충무공탄신기념 제향을 맞이하여 온양문화원에서 관내 남녀 초중고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이충무공의 탄신을 축하 하는 노래와 무용을 곁들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었다. 1961년 5·16 혁명 후에는 이충무공 탄신기념 제전 행사를 충청남도과 문교부에서 주관하던 때와, 공보부(문화공보부)로 현충사 관리사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온양문화원이 이충무공 탄신기념 문화예술제를 주관하여 해마다 개최하여 왔다. 특기할 만한 것은 충남 교육위원회의 지원아래 온양읍내 남녀 중고등 학교별로 각기 독특한 과제를 부여하여 이충무공의 애국정신과 관련된 가장 행렬을 실시하여 대단한 성황과 행사효과를 얻는데 성공한 바 있었다. 또 전국 규모의 백일장이 곡교천변에서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신정호수 물 위에서의 거북선 실연과 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쟁놀이, 노산 이은상 선생 등의 특별 강연회, 인간문화재들의 특별 공연, KBS와 아산군과 온양문화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정상급 연예인 초청 이충무공 탄신기념 경축 대공연도 연계사업으로 마련되어 왔고, 전야제의 일환으로 불꽃놀이와 제등행렬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매년 경축 문화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이때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참배객과 더불어 온양은 온갖 경축 일색으로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초반 이후 계속해 오던 위와 같은 문화행사를 한동안 축소하여 전야제 행사인 불꽃놀이와 제등행렬 그리고 KBS 군민위안공연만을 실시해 오던 중, 1982년도에 온양문화제위원회가 발족

하여 매년 개최해 오던 이충무공 탄신기념 지방적 경축행사를 군민이 주도 참여하여 실시함으로써 전통 있는 향토문화축제로 확대,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나. 서울 파초무용단 초청 공연

온양에서 제일 규모가 큰 무용 행사는 1964년 온양문화원이 주최한 서울의 파초무용단 초청 공연을 온양역전 광장의 특설 무대에서 개최한 것이었다. 또 1973년 현충사 경외 휴게소 광장에 마련된 불교 무용발표회도 그 규모가 큰 것으로 온양 지방에 불교무용의 진수를 소개하게 된 것은 이 행사가 처음이었다. 당시 온양문화원에서 지원 육성하던 전속 무용단 찬조출연이 이채로웠으며 이 행사는 온양읍 용화리 소재 정업원의 전준양이 특별히 수고하여 이루어진 행사였다.

#### 다. 온양문화원 전속무용단 활동

온양문화원에는 1963년부터 1974년 초까지 전속 무용단을 육성하였었다. 일반 가정 주부를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여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전속 무용단은 사범 이은주(여)와 무용 애호가 최철(온양여고 출신)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온양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기량을 연마하고 봄 가을로 나누어 발표회도 개최함으로써 당시에는 아산에 일대 무용붐이 일어난 바 있었다. 온양은 학교 무용부의 활동도 대단한 바 온양여자고등학교와 온양여자중학교 그리고 온양온천국민학교 무용부들의 솜씨가 뛰어나 널리 인정되는 학교무용부였으며 온양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들 학교무용부들이 출연하여 절찬을 받기도 하였다.

#### 라. 농어촌 순회 공연

1962년 6월 온양문화원에서는 농어촌 주민 위안과 군민 단합을 목적으로 농어촌 순회 연예공연단을 조직하여 12개 읍면에 대한 농어민 위안 공연을 개최하였다. 악단과 소인극부를 편성하고 농어민을 위안하기 위하여 노래자랑과 경음악 연주를 하고, 군민 단합과 생활개선 등을 주제로 한 단막극을 공연하여 많은 농어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순회 기간중 우천 등으로 인하여 12개 읍면에 걸친 순회 공연 기간이 무려 25일간이나 소요된 때도 있었다. 순회공연단 악단은, 윤석훈, 이승구, 이성송, 유무호, 박일출, 홍재현, 이원장 등 온양고등학교 밴드부 출신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연주 실력이 훌륭하여 가는 곳마다 대단한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농어촌 순회공연을 위한 교통수단은 당시 온양읍 모종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 109 육군병원 측에서 지원하는 군용차(Three Quarter)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지원된 온양읍 사무소의 현대식 청소차를 이용하였으며, 침식은 공연 현지의 이장택 사랑방이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하면서 공연을 하였다. 무대는 각 국민학교 교실 교탁을 이용하여 가설무대를 만들었고, 조명은 낚시용 칸델라(카바이트) 불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였다. 특히 이 공연을 위해서 당시의 아산군청 행정계장 정연달,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동국대학 출신 온천리 거주 정한영 등 여러분의 노고가 지대하였다.

마. 아마추어 사진 작품전

한국 전쟁 이후 당시의 지방 신문기자인 이광필, 유춘원, 김용환, 김수목 등이 소지하고 있던 취재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평소 습득한 솜씨를 토대로 많은 사진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당시 온양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하고 사진관을 경영하던 이준모와 이들이 사진을 통해 서로 교류를 하던 끝에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시회를 당시의 남궁다방에서 개최하였다. 그 후 1974년 2월에 최병선, 윤기찬 등이 주축이 되어 규모가 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었다. 그때의 사진전시회는 사진 예술에 대한 진수를 익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최병선, 윤기찬의 작품 수준은 대단하여 관람객들이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이후 주민들의 사진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바. 문화의 달 예술제

매년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온양문화원 주최로 1976년 10월부터 문화의 달 예술제가 개최되어 오고 있다. 온양극장을 비롯한 온양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 행사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노래, 무용, 밴드 등이 출연되고, 직장파 일반인들도 대거 참여함으로써 지방 문화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 군내 읍면 및 직장 대항 건전가요 경연대회

1976년부터 3회에 걸쳐 온양문화원 주최로 아산군내 읍면 및 직장 대항 건전 가요 경연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대회 11개 이상 팀들이 출전하여 그들의 실력을 겨루었다. 이들의 실력을 가리기 위해 때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회 일정을 다음 날까지 연장 실시하는 등 건전 가요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행사 규모가 대단히 크고 소요되는 경비 또한 상당액이 필요하여 이의 재정 조달 방법 등 문제로 인해 근간에는 이 행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학교 문화행사

학교명	행사명	행사내용	시행년도	비고
온양국민학교	학교발표회	합창, 독창, 동화, 무용	1978	
	학부모위안경로잔치	구기, 무용	1979	
	웅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1980	
온양온천국민학교	학예발표회	무용, 연극, 음악	1978	고전무용단(부채춤) 운영
	학부모위안경로잔치	무용, 음악	1979	
	웅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청소년 선도 등	"	
온양동신국민학교	학예발표회	무용, 연극, 음악	1978	
	학부모위안경로잔치	무용, 음악	1979	
	웅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등	"	

온양천도국민학교	학부모위안경로잔치	무용, 연극, 음악	1980	학예발표회와 결합
	응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등	1978	
온양초사국민학교	학예발표회	음악, 동극, 문예	1977	
	학부모위안경로잔치	음악, 무용, 연극	1979	
온양중학교	노인회위문발표회	농악	"	
	응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교통 안전, 청소년 선도 등	"	
온양여자중학교	학부모위안경로잔치	음악, 연극, 무용, 체육	"	학예발표회와 결합
	응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	
온양고등학교	응변대회	멸공의 길 등	1977	
아산고등학교	응변대회	멸공사상	"	
온양여자고등학교	학예발표회	음악, 무용	"	
	학부모위안경로잔치	음악, 무용, 연극	1978	
온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부모위안경로잔치	음악, 무용, 연극	1980	학예발표회와 결합
	응변대회	반공정신 고취	"	

## 7. 체육

### (1) 사적고찰

온양의 체육은 1986년 1월 1일 온양읍이 아산군으로 부터 분리되어 온양시로 승격되기까지는 아산군 체육회 산하의 온양읍 체육회로서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아산군 체육회 산하 1읍 11개중 가장 체육세가 컸던 것은 말할것도 없고 가맹 경기단체등도 읍세에 걸맞게 온양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각종 체육시설, 체육행사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온양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거나 온양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온양이 아산군 체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온양이 시로 승격된 후인 1987년도에 시행한 충청남도내 22개 시, 군, 구의 체육실력을 겨루는 충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온양시와 아산군은 사이좋게 17위로 동위 성적을 기록하였고, 1988년도에 실시된 충남도민 체육대회에서는 온양시가 13위, 아산군이 18위에 성적을 거둬으로써 온양시의 체육세가 결코 뒤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양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에서도 기인되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체육행사가 실시 되었었고 많은 팀들이 온양의 명예를 안고 경향 각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에 출전하여 쌓아온 수준 높은 경험과 실력들이 잠재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도 되겠다.

특히 일제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온양 체육을 말함에 있어 온양인들의 강한 승부욕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전통과 특징이 있다.

일제때에 체육활동을 했던 원로들의 말을 구태여 빌리지 않더라도 도민 체육대회에서의 유별나게 악착스런 온양 체육인들의 분전모습 등을 통하여도 넉넉히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온양인 특유의 기질은 우리 온양이 옛부터 많은 전쟁의 격전지였던 역사성에서도 기인 되겠지만 무엇보다 민족감정에 젖어있던 일제때 온양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등이 자주 열렸고 이럴 때마다 일본인과의 대전 등에서 꼭 무슨일이 있더라도 사력을 다해 일본인을 이겨 억눌린 일제로부터의 압박을 벗어나고파 하는 우리민족의 우월성과 끈기있는 저력 등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그러길래 일제때 시행됐던 각종 경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8·15해방후에 창설되어 대전, 천안, 태안 등지에서 개최된 전국 도시대항 축구대회에 온양팀(OY팀이라고 하였음, OY는 영어의 온양 첫자를 딴 약자임)이 출전만 하면 그대회의 열기는 고조되고 관중들 또한 손에 땀을 쥐게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진행, 심판, 응원시설 등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OY팀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따지고 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경기장은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심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기도 하며 그럴 때마다 대회 본부석엔 온통 온양인들로 꽉차게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온양은 축구팀들이 많았고 축구기술 발전도 대단하였으며 축구경기도 빈번히 개최 되었다.

특히 축구는 8·15후 서울에서 이사온 남궁현과 이북 함경도에서 피난온 이일선 (별명이 두둑바리 - 축구선수였음)이 체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정진, 이택상 등을 방문 온양축구의 재건을 건의하였고, 그들이 헌신적으로 축구팀 육성을 다짐하기에 이르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 OY팀이란 축구팀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김수목, 이주진, 이승구 등 15명이 온양 축구팀을 조직하고, 6·25동란 직전까지 전국 각종대회에 출전, 우승 또는 준우승 등 번번이 상위권 입상을 하여 충남 도내에서는 강력한 팀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OY팀에 얽힌 비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한번은 1948년 인근지역 천안의 천안농업학교 구장에서 벌어진 제2회 충남도내 시, 군 대항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9개팀들이 실력을 겨루게 되었는데 워낙 온양팀의 실력이 강하여 여타 시군팀들이 온양팀 타도의 공동 작전들을 펴고 나왔다.

경기결과는 최후 결승전에 온양팀과 전의팀이 대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의팀은 서울에서 직업선수까지 고용 순수한 전의인으로 구성된 팀이 아닌 혼성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력도 만만치 않은데 천안팀 관계자들을 통하여 우리 온양팀에게 이번 대회만은 온양팀이 의도적으로 패해줘서 전의팀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상이 들어왔다.

이유는 많은 경비를 들여 출전한 전의팀이 패하고 돌아가면 면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옛부터 승부욕에 남달리 강한 온양팀들이 양보할리는 만무하다. 천안팀으로부터 협상을 통해 받은 제의를 온양팀이 거절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온양팀 선수중 가장 나이 어린 이승구가 앞장서 거절하는 바람에 이때 화가 치밀은 천안과 전의팀들이 행패섞인 시비로 이승구는 혼줄이 났고 끝내 결승전 경기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미 고인(6.25 동란중 북괴군에게 학살당하였음)이 된 이승구는 온양 축구발전에 너무도 많은 공을 남긴 분이데 필자도 그분을 코치로 모시고 3, 4년 축구를 한 사람으로 성품이 대쪽같고 정의감에 남달이 불타며 자나깨나 축구이외는 모르는 씨의 억척 때문에 오늘날 온양 축구의 명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하다.

어떻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온양 체육의 강한면을 살필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온양지방은 타지방에 비하여 비교적 체육환경과 여건이 꺾이나 좋았다.

우선 일제때만 해도 당시 일본인(경남철도 주식회사)들이 개발한 훌륭한 공설운동장 시설이 있었고, 경향각지의 유명 선수들을 유지하여 전국대회 규모의 정구대회를 비롯한 야구, 축구대회 등이 온양에서 많이 개최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승마도 한때는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고, 체육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냥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온양과 아산지방을 빈번하게 찾아와서 체위단련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온천장을 갖고 있는 휴향지로서의 조건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짐작이 간다.

당시의 공설운동장에는 매일 많은 스포츠 애호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즐기고 체력연마를 하는 관계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서 지역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65년도에 이 공설운동장을 처분한 뒤로 현재까지 이같은 운동장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하루 속히 공설운동장이 탄생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일반 체육팀이 처음으로 창설된 것은 1938년 당시의 주식회사 수농원(온양시 용화동 3구 소재, 경영주 이영진과 일본인 합작)에 정구코트를 설치하고 설화산 정구 구락부를 창설한 것이 일반체육팀이 시초가 되겠다.

당시 온양과 아산에는 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으나 이 사람들에게 대한 기술지도와 정구보급 등을 위한 코치와 코트가 없어서 많은 애로와 불편을 겪어온 바 있었다.

당시 조선대표 선수권을 가진 길인형, 이정진 등을 온양에 초대하여 친선게임을 개최하면서부터 정구에 대한 열의가 더욱 가열되어 정구코트가 생기게 되고 정구 애호가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어 온양의 대표선수로서 이정진, 이택상 등이 전국 정구대회에 출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우승을 획득하여 개가를 올리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온양 온천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해서 5, 6차에 걸친 전국 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니 서울을 비롯 대전, 대구, 청주, 전주 등지의 대도시에서 당시의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시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제반경비는 출전하는 선수들 각자가 부담하였으며 온양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의 소요경비는 몇몇 체육인들이 부담하였다. 이렇게 정구경기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야구경기도 붐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온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병원의 군인들과 온양지방의 한국인들 그리고 각 직장에서 주로 야구팀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일본인과의 혼성된 일반팀을 비롯, 아산군청팀, 미곡검사소팀, 육군병원팀들이 있었다.

이 야구팀들은 매월초 3차의 야구경기를 개최하여 체력 단련과 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었으며 조치원을 비롯한 이웃 지방과 경향 각지의 이름있는 야구팀들이 온양에 와서 친선경기를 갖기도 했다.

아산군팀(한국인과 일본인 혼성팀)은 대전대회 등에 출전하여 매우 높은 실력을 발휘한 바

있었다.

그리고 1937년에 이정진을 중심으로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승마구락부를 창설하여 승마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승마에 필요한 말 10필 당시의 일본군(조선군이라 칭했음) 사령부에 임시대여 신청을 하여 일본군 참모총장(이하)으로부터 말을 대여 받았다.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말을 대여받는데 있어서 두가지 조건부로 대여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승마구락부라는 명칭을 아산기도회로 바꾸어 쓸 것, 둘째로 말을 대여하되 그 말의 건전하고 철저한 사육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데 대한 서약서를 쓰던지 대여기간동안 일본인 우선 승마를 이행한다는 너무도 차별적이고 까다로운 대여 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여 승마의 기술을 열심히 닦고 노력한 보람으로 1941년 온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고등마술대회에서는 이 대회에 출전한 일본군 이하라 참모총장과 사사끼라는 일본군 대좌 등을 당당히 물리치고 대 장애물 경기에서 한국인 성기태가 1등을 하고 역시 한국인 이정진이 2등을 차지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그리고 온양과 아산지방의 체육활동으로써 빼놓을 수 없는 특기사항이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닌 궁도라고 할 수 있겠다.

온양 남산공원 중턱에 자리잡은 활터가 있었는데 정회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을 쏘며 체력을 연마, 각종 궁도대회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온양과 아산 궁도의 실력을 크게 과시한 바 있었다. 이곳 남산공원 활터는 1964년경에 아깝게도 없어졌다.

1946년 이정진을 중심으로 이택상, 이주진, 유석환, 남궁현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온양 체육대회에서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정구, 탁구, 육상 등 많은 체육활동을 벌여옴으로써 주민 체위 향상에 기여한 바 있었다.

당시의 온양 체육회장은 명예직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 왔으며 반면에 체육회장은 많은 재정적 지원을 감당해야되는 고충도 없지 아니하였다. 이런 중에서도 특히 축구와 정구 등 여러종목에 걸친 전국대회를 온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그후 우리 고장의 체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온양 체육회가 아산지방의 체육활동을 주도해 오던 중 5·16혁명 이후 1968년 5월 국민체력 증진과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체육진흥법에 따라 아산군 체육회의 조직이 관 주도형의 조직으로 바뀌면서 회장에는 아산군수가 부회장에는 경찰서장, 교육장이 각각 자동적으로 맡게 되면서부터 모든 체육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소년체전 등의 체육대회에 아산 체육회로 출전하게 돼 온양 체육회의 특색은 사라지고 아산 체육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봉사단체,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들이 주최하는 직장대항 또는 읍면대항 배구, 축구 등 체육대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기도 했다.

그외 정구, 축구 등 각종 조기 체육팀들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 도대표급 각종 선수들이 배출되었으며 체육시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5·16혁명 이후 이 고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반 체육행사로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국장으로 있던 김세배가 마련한 프로레슬링 대회를 온양고등학교 운동장 특설링에서 베풀어진 것으로서 이 대회때는 인근의 천안, 서산 등 7, 8개 시군에서 수많은 관객들이 자동차를 대절 온양에 와서 이 대회를 참관한 바 있다.

다음으로 1962년 온양문화원이 주최한 공보부장관 우승기쟁탈 군내읍면대항 축구대회와 근

래에 아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전국종별 필드하키 선수권대회, 그리고 매년 대전일보사가 개최한 현충사를 끝인지점으로 하는 충남도내 고등학교 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비교적 규모가 큰 체육행사였다고 하겠다.

온양시로 승격(1986. 1. 1)되면서 온양시 체육회가 탄생되었고, 본격적인 온양 체육진흥의 조직으로 강화되어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1987년 충남도민 체육대회때 처녀출전하여 도내 22개 시, 군, 구중에서 17위에 1988년도 도민 체육대회에 출전 13위 성적을 거두었고, 1986년 개최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지원과 역사적인 88서울 올림픽을 위한 성화봉송을 특색있고 거시적인 행사로 치뤘으며 각종 민속예술 행사 등도 실시하여 온양이 안고 있는 저력을 과시하였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988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천안의 단국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한 바 있는 스포츠 과학 세미나의 개최시에는 세계의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스포츠 관련 저명인사들이 우리 고장 온양온천과 인근 도고온천의 숙박시설에서 유숙하면서 스포츠 과학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당시는 우리고장이 1,800여명의 외국인들로 분변 마치 국제도시와 같은 인상을 풍기기도 하였으며,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고장 온양이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전체 온양시민의 단합된 힘과 관내 행정기관에서의 치밀한 행정지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 대 역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서 스포츠 온양의 전통을 착실이 다져 놓았다고 보겠다.

아울러 우리고장 온양에 소재하고 있는 사학의 명문 아산고등학교 하키팀에서 육성한 국가대표들과 온양 중앙여자종합고등학교 하키팀에서 배출한 국가대표 여자하키팀들의 메달획득등은 스포츠 온양의 큰 자랑 아닐 수 없으며 온양시 방축동에 현대식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어 온양 체육의 명실상부한 산실과 도장으로서 기여하게 되었고, 온양 실내체육관 옆에 개관된 초현대식 온수를 이용한 실내 수영장 등은 온양 체육발전을 위한 일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온양시가 추진중에 있으며 전 온양시민의 축원이기도 한 대규모 종합공설운동장이 하루속히 완공되어 대전시가 충남도에서 분리 경기를 충남서부의 웅부 제2도시인 온양으로 유치 더욱 스포츠 온양의 웅비를 다질 계기가 이루어져야 할 숙제로 안고 있다.

온양시 체육회 활동상황과 스포츠 온양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2) 온양체육회

1946년도에 조직된 온양체육회가 이 고장의 체육활동을 주도해 오던 중 5·16혁명이후 국민체력 증진과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체육진흥법에 의거 1968년 5월 아산군체육회를 조직하였다. 아산군 체육회의 발족과 함께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심기일전하여 활기를 띠기 시작, 매년 개최되는 충남도민 체전과 소년체전등의 체육대회에 200~25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킴과 동시에 아산군민 체육대회등 각종 체육행사를 매년 주관하여 왔으며 아산 체육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아산군 체육대회가 발족되기 이전 온양 체육회를 모체로한 각종 체육행사는 인근 어느 지방보다 활발하게 여러 분야의 체육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특기할 것은 이 무렵의 온양 체육회 운영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 원하였던 당시 온양 체육회장 목 영국의 공로는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의 수행을 위하여 풍부한 실력과 오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헌신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오늘의 온양 체육진흥에 기여한 온양 체육회 임원이었던 장일환, 김영수, 윤용문, 이덕윤, 유석환, 이택상, 이은익, 이정진 등의 활약상은 크게 돋보였고 온양 체육회 사무국을 담당, 제반 체육행사 실무의 집행을 거들어온 박노을의 헌신적 노력도 온양 체육발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후 온양체육회가 해체되고 아산군 체육회가 탄생되면서 그동안 온양체육회 임원으로 활약 하던 많은 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온양체육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던 분들 가운데 이덕운, 윤용문, 김영수, 장일환등 임원들은 계속 신생 아산 체육회의 임원으로 활약하게 되며 아산군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은 온양 체육회 사무국을 담당해 왔던 박노율이 아산군 체육 실무자들의 지원속에 체계있는 체육활동을 전개하는데 계속 사무국 책임자로 이바지해 왔다.

아산군 체육회가 발족되면서 항상 대두되는 체육행사 수행에 수반되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가로 놓이게 됨에 따라 아산군 당국에서는 체육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뜻있는 지방유지로 부터의 체육 성금 명목의 특지 참조를 받거나 기타 아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맡아하게 되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의 자발적인 체육성금 등을 기탁받아서 아산군 체육성금을 상당액 확보하여 이 기금을 토대로 하여 아산군 체육활동의 재정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활동은 점차 많은 군민들이 직접·간접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체육진흥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활력소 역할을 기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986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 탄생되는 온양시 체육회가 발족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아산군 체육성금으로 확보되어 있던 체육기금을 온양시 체육기금으로 일부 나누게 되는데 당시 아산군 체육성금 중에서 온양시 체육회 기금으로는 800만원이 할애된 바 있다. 신생 온양시 체육회의 조직과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 등은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아산군 체육회의 규약에 의존, 조직의 대강 및 임원구성과 사업의 내용등 단체 구성에 따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갖춘 상태에서 탄생됨으로서 앞으로 명실 상부한 온양시 체육회의 기능과 사업추진을 위한 폭넓은 조직의 확대, 전문단체의 조직육성, 사회체육의 활성화, 학교체육의 지원활동, 재정위원회의 가동, 동체육회의 조직강화 등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보완되고 본격 가동되어 체육진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 (3) 사회체육

온양체육의 사적고찰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천혜의 온천수에 의한 좋은 조건 탓으로 연유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옛부터 체육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활동상이 이어져왔다.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장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열의 또한 대단한 편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접어들면서 사회체육 부분이 다소 뒤지고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 갖고 있지 못한 현대식 실내수영장이나 1990년대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우리 충청도내에서 단 하나뿐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완공케되고 현재 온양시가 추진중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완공케되면 명실상부한 체육의 고장 온양의 옛 전통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온양의 사회체육 부분을 기술함에 있어 일제때의 체육 활동 편과 온양이 시로 승격된 이후의 사회체육 활동상을 기술하여 온양시의 사회 체육 부분을 이해하는데 참고로 삼도록 하였다.

#### 1) 8·15해방 이전의 사회체육활동

##### 가. 정구대회

1938년 온양시 용화동 소재 수농원(과수원) 정구 코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정구대회로서 이 대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 고장에서는 정구를 즐기는 동호인 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하여 갖은 정구대회가 계속 개최되곤 하였다.

#### 나. 야구대회

일제때에 일본인들이 설립한 경남철도 주식회사에서 현대식 시설로 개장한 공설운동장(지금의 온천초등학교 맞은편의 전 아산군 보건소 자리일대)에서는 야구 대회용 시설이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팀들도 아산군청팀, 미곡검사소팀, 육군병원팀들이 있어서 빈번하게 야구경기가 개최되곤 하였었다.

#### 다. 궁도대회

우리 고장의 국공계 원로이신 정희복을 주축으로 한 궁도인들이 남산(지금의 노인복지회관 온양문화원 바로 아래지점) 활터에서 1940년대부터 활을 쏘며 기술을 연마하였으며 궁도대회도 자주 개최하였었다.

#### 라. 마술(승마)대회

1941년 당시의 공설운동장을 이용하여 승마대회가 개최되었는 바 당시에 일본군인 사사끼라는 사람(승마에 뛰어났던 일본군인)을 당당히 물리치고 성기태가 1위, 이정진이 2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려 한국인의 승마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일본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 2) 8·15해방 이전의 사회체육활동

체육의 사적 고찰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온양은 천혜의 온천수의 영향으로 체육활동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체육열도 높았고, 승부욕도 강했으며 온천의 덕택으로 국가대표급 유명선수들이 온양으로의 전지훈련을 오는 기회가 자주 있어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도 높았던 편이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OY축구팀, OY체육회, 정구, 농구, 탁구 등 각종 구기종목에 걸쳐 팀들이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각종 대회도 많이 열리곤 하였었다. 특히 1948년에 경제통신사가 주최하는 전국 정구대회는 그 규모면이나 출전선수들이 가히 정상급 최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남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구제중학교 대항 축구대회는 국내축구 명문중학교 팀들이 대거 출전하여 대성황을 이루곤 하였었다. 그리고 온양에서의 체육활동사항 가운데 각종 구기종목을 열심히 지도하였거나 구기종목들의 실력향상과 많은 동호인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온양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기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리고장 온양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에 대한 자세한 활동상은 이미 사적고찰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체육회를 이끌어오신 목 영국회장을 비롯하여 일제때부터 체육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신 이정진, 이택상, 유석환 등과 농구의 심우택, 배구의 이덕운, 축구의 남궁현, 이주진, 이승구, 탁구의 이은익 등 제씨의 업적은 높이 살만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이다. 이와 같이 8·15광복 이전 일제치하에서의 우리고장 사회체육의 활동상과 8·15광복 이후에 있었던 사회체육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았다. 위에서 기술하여야 할 온양체육회 시절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은 체육의 사적고찰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었기에 줄이기로 하였다. 다만, 다음에 기술되는 아산군 체육회시절 이전의 온양체육회(온양이 읍시절) 활동은 철저한 민간주도형 체육활동이었던 것에 비하여 아

산군체육회 시절은 관주도형 체육활동이었던 것이 큰 차이점으로 대두되는 것을 참고로 하여 양자가 지닌 장단점과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화롭게 조절하여 향후 온양체육의 나아갈 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5·16혁명 이후 관주도하에 조직된 아산군 체육회하에서의 우리고장 사회체육 활동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3) 근래에 있었던 체육활동

비교적 규모가 크고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거나 비록 1회 대회만으로 끝나긴 하였지만 우리 고장의 체육진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체육활동 가운데 8·15이전과 8·15이후의 체육활동상으로 기술된 것 이외에 체육자료조사 팀들이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물론 자료조사의 미비로 많은 체육활동 자료가 소개되지 못함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되지만 미진한 부문은 추후증보판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근래에 있었던 체육활동 상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나 상급단체 등에서 시행했던 정기종별 대회 등은 당초에 수록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참고하기 바람)

#### 가. 온·아체육대회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온·아친목회가 주도하는 온·아체육회의 활동상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온·아체육대회는 1989년으로 제23회째를 맞이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오면서 우리 고장의 체육진흥에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온·아체육대회는 온양중학교와 아산중학교의 제6회 졸업생으로부터 제12회 졸업생에 이르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회도 온양중학교와 아산중학교 운동장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회원들간의 두터운 친목도모와 고장 발전에도 이바지한 바 있으며 제7회 졸업생들은 모교인 온양중학교와 아산중학교에 200만원씩의 기금을 기증한 바 있고 온양중학교와 아산중학교에 천막 7개씩도 기증하였다.

#### 나. 충무체육대회

충무체육회는 우리 고장의 건실한 동창회모임으로서 그 조직 구성원은 온양온천국민학교, 온양중학교, 아산중학교, 온양고등학교의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기의 각 학교 졸업생들중 제13기 졸업생부터 제 18기 졸업생들까지의 동창생들이 모여진 조직체이다. 그런데 동회는 회원 2800여명에 달하며 온·아·온동창들간의 두터운 친목과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길게 간직하며 고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생된 조직체로서 온·아·온동창들의 모임체인 바 제13기는 온·아·온동창회, 제 14기는 동아동창회, 제15기는 늘벗동창회, 제16기는 16동창회, 제17기는 충청회, 제18기는 신정회라는 각기 다른 개별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궁극의 목적은 앞에서 밝혔듯이 온·아·온동창들의 총집결체로서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대동 단결하는 모임체로서 설립되어 제1차적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부대적 사업으로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격의없는 의사를 집대성하여 고장에 헌신한다는 높은 뜻으로 충무체육대회를 연례 행사로 개최해오고 있는 바 동·충무체육회가 그간에 거둔 성과는 우리 고장의 체육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끼친 업적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고장 체육진흥과 고장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충무체육회는 13회에 걸친 체육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980년 10월 2일 제1회 충무체육대회 개최(13회 주관)를 시작으

로 하며 1989년 10월 8일 제13회 충무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다. 온양문화제 부대행사

##### ① 씨름대회

온양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의 봉사단체인 아산청년회가 주최하는 씨름대회는 1982년부터 실시하며 1989년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1982년도에는 우리나라 씨름계의 정상급 선수들이 온양온천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장사씨름 대회를 아산청년회가 주최하였으며 다음해부터는 아산군내 각급학교 대항과 읍면대항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씨름실력 향상과 주민체력 단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아산청년회에서는 씨름대회를 위하여 해마다 5~600만원씩의 경비를 들여 수준높은 대회로 이끌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끼친 공과업적이 대단히 크다. (지면관계로 역대전적은 생략한다.)

##### ② 궁도대회

대한궁도협회 충청남도 지부 온양충무정은 1983년 6월에 창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심신연마 전통궁술 저변확대 장학사업 등을 주도하여 오고 있는 바 궁도대회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충서지구 친선 궁도대회에도 출전하여 개인입상 12회, 2위입상, 3회 3위입상, 5회 4위입상, 2회 5위입상, 2회 단체입상은 충서지구대회 준우승 1회 3위, 1회의 전적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충남체전에는 우리 고장의 궁도대표로서 출전하고 있다.

##### ③ 제1회 온양시장기 쟁탈 축구대회

온양시가 주최하고 온양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온양시장기 쟁탈 축구대회가 1987년 10월 18일 온양온천 국민학교 구장에서 마련되었었다. 이 대회는 각기관 및 직장, 단체간의 친목과 전시민의 화합단결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시행된 행사로 이 대회에는 온양시청, 온양군청, 온양경찰서, 교육청, 관리대, 전화국, 온양필프, 신기공업사, 조기축구회 6개팀등 14개팀이 출전하여 실력을 겨룬 바 있었다.

##### ④ 봉사단체 연합회 체육대회

우리 고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봉사 단체들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봉사단체 연합회가 해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봉사단체 연합체육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양·질 면에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각 봉사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들의 가족을 위시한 전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 가운데 그 비중의 폭이 점점 넓어져가고 있다. 지면관계로 역대 대회전적을 실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더욱 발전있기를 기대한다.

##### ⑤ 라이온스클럽 연합체육대회

우리 고장에는 많은 국제봉사단체를 비롯한 각종 봉사단체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라이온스 클럽은 온양·아산지구를 합하면 상당수에 달하는 클럽들이 있어서 봉사단체 클럽으로는 숫자적

인 면에서는 가장 많은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온스클럽에서는 근간에 온양·아산지구에 산재해 있는 각 지역 라이온스 클럽회원들의 친목을 돈독히하고 회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라이온스클럽 전가족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서 내용면이나 규모에 있어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대회를 평가받고 있다.

#### ⑥ 제 7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70회 전국 체육대회에 우리고장 온양시 선수들이 충남대표팀으로 출전한 바 있다. 이번 제70회 전국체전에 충남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우리고장 온양출신 선수들은 아산고등학교 하키팀선수 18명과 온양여중고 하키팀선수 18명, 온양고등학교 역도선수 9명, 우수선수 육상부 유영상 1명, 온양여고교 농구선수 9명, 온양골프연습장 대표 이유철이 골프부에 각각 출전하여 선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우리고장 온양출신 충남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온양시 체육회장인 박찬무 온양시장은 체육회 임원들과 9월 26일~27일까지 대회장인 경기로 수원을 찾아 선수들을 위문 격려하고 앞으로 우리 온양시가 치르게 될 충남도민 체전의 성공적 수행과 한걸음 나아가 전국체전의 담당도 무난히 해낼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을 불어넣게 하기 위하여 시청담당 공무원들도 대동하여 선진지우수사례 견학도 실시하여 체육온양의 장래에 큰 꿈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 (4) 체육단체

우리고장 온양에서 체육단체로서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일제치하에서 부터의 자료만 입수하였으며 그 이전의 체육단체 활동상황은 알 길이 없다. 아울러 여기 소개되는 체육단체들 이외에도 조사되지 못한 체육단체들이 있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길이 없어 부득이 체육관계 조사팀들이 입수한 자료에 나타난 부분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참고로 아산군 체육회시절 체육단체와 온양시 체육회 발족이후의 가맹단체들은 참고자료로 기술하였다.

##### 1) 해방이전의 체육단체

###### 가. 설악산정부 구락부

우리 고장에서 처음으로 정구코트를 설치한 온양시 용화동소재 수농원에서 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 친목단체 형식으로 조직, 활동하였던 단체로서 길인형, 이정진, 이택상등이 중심이 되어 1938년경에 수농원정구 코트를 이용하여 테니스를 즐기던 단체가 있었다.

###### 나. 아산군청 야구팀

1940년경 조직된 야구팀으로서 당시만해도 우리 고장에서는 야구경기가 활발하게 실시되던 때로서 아산군청 야구팀은 팀구성이 비교적 잘되어 있었던 팀으로 평가되었다.

###### 다. 미곡검사소(현재의 농산물 검사소) 야구팀 (1940년)

###### 라. 일본인 육군병원 야구팀 (1940년)

위 미곡검사소 야구팀과 일본인들로 구성된 육군병원 야구팀들은 아산군청 야구팀들과 잦은

경기를 개최 우리 고장에 야구붐을 일으켰으며 충남일대에서의 우리고장 야구실력을 크게 인정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었다.

#### 마. 승마구락부

이밖에 이정진을 중심으로하여 태동된 승마구락부가 1937년 조직되어 승마용 말 10필을 육군사령부로부터 대여받아 승마스포츠를 연마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바 있다.

#### 바. 아산기도회

온양승마 구락부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인 승마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동료인들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 2) 해방이후의 체육단체

#### 가. OY축구팀

1946년에 이정진, 이택상, 이승구, 남궁현, 이일선, 김수목, 이진주등 15명이 활약했던 OY축구팀은 온양이라는 영어의 첫 자를 따서 OY축구팀이라고 이름지어진 단체로서 이 축구팀은 충남도내에서 벌어진 각종 축구경기에 출전하여 여러차례의 우승을 거둔 축구팀으로서 우리고장 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이다.

#### 나. 선장축구팀

1949년 선장면에 거주한 박종옥에 의하여 조직된 축구팀으로 이 단체의 운영과 뒷바라지는 주로 박종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단체의 실력 또한 크게 인정되었었다.

#### 다. 온중축구팀

온양중학교 교사였던 박형규에 의하여 지도와 기술연마를 받아왔으며 여러 대회에 출전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는 바 당시 활약하던 선수로는 박노을, 김진동, 정한영, 허은 등 학생들이 꾸준하게 실력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고장의 축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는 이승구의 기술지도는 특기할 만한 업적으로 남게 한다.

#### 라. 소년부축구팀

1947년경 활동하던 소년들로 구성된 축구팀으로 이 축구팀이 거둔 온양축구의 명성은 실로 크다. (당시에 활약했던 선수들을 소개하면 이종옥, 전석대, 김현경, 명골키퍼였던 김모(일본창씨명 가네미쓰)등 후보선수들을 비롯하여 2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매일 A, B조로 나누어 열성껏 훈련을 통한 체력을 단련하였고 때로는 지역사회 발전사업에도 발벗고 나서기도 하였다.

#### 마. 축구동호인클럽

1948년에 우리고장 축구발전사의 금자탑을 이룬 축구광이자 축구이론가이며 축구선수이기

도 한 이승구에 의하여 주로 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된 축구동호인 클럽으로 이 단체에 가입 활약하였던 회원들로는 박노을, 이정구, 허은, 윤석구 등이 있다.

3) 온양시 승격이후 탄생된 체육회 가맹단체

가. 체육회 가맹단체

경기종목	회 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인 원	전 화
육 상	이 석 구			
축 구	서 창 호	윤 석 호	16	2-2035 / 2-1933
야 구	조 영 곤	이 창 용	28	2-8222 / 44-4524
테 니 스	신 정 균	박 무 신	23	42-3263 / 43-3907
배 구	이 풍 구	원 태 회	9	2-3755 / 2-7556
탁 구	김 영 권			
역 도	김 영 태	이 승 호	25	2-2696 / 2-2075
씨 름	강 태 건			2-7319
유 도	서 원 갑			2-2022
국 궁	유 달 준	김 해 성	31	2-8107 / 2-4812
사 격	박 노 철	임 창 인	11	2-3600 / 2-9378
배드민턴	박 영 선	조 병 무	27	2-6694 / 2-1955
태 권 도	김 정 환	지 용 태	32	2-3534 / 2-3324
골 프	양 준 호			43-7885

나. 온양 조기 축구회

축구발전과 회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자생조직 단체로서 활약하고 있는 조기축구회의 활동도 대단하다. 온양 조기축구회 산하 각 조기 축구회의 명칭과 그 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는 장소를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 칭	훈 련 장 소	비 고
청룡조기축구회	온양온천국민학교	
은아조기축구회	온양중학교	
천우조기축구회	온양고등학교	
통일조기축구회	동신국민학교	
충무조기축구회	온양온천국민학교	